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新聞

발행인 金澤玉 주 간 鄭大然
편집국장 高榮哲 편집장 任尚繁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 1번지
전화: (직) 54-2278·2279
인쇄: 라일보사

(입시특집 호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라 2497호]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노)급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1년 11월11일 (월요일)

1

대학발전의 기본 방향

교육 여건의 개선 질적 향상 등에 주력

'90년의 역사적 격동기에 처하여 제주대학교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참신한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혀 나가야 할 사명을 안고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이를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이 살아있는 이념 체계의 교수로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사회발전의 동인은 대학에서 현실적 이념을 추구하고 거기에 실천력을 결집한 지식인들이 의해서 조성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제주대학교의 발전은 곧 제주사회의 발전이요, 밝은 미래의 제주사회를 실현해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대학교가 먼저는 제주의 대학으로, 나아가서는 국가와 인류의 현안을 개선하고자 하는 민족의 대학, 인류의 대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제주에 사는 우리들 모두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제주대학교는 이러한 사회적·시대적 요청에 걸맞게 대학의 보편적 이념과 교육의

인지적 특성을 조화시켜 세계적 대학으로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대학교는 여제의 제주대학에서 탈피하여 30만여명의 아라별에 8개 단과대학, 4개의 대학원, 8천여 학생과 8백여 교직원들 해아리는 대학으로 성장하였으며, 새 세기에는 1만여 학생과 1천여 교직원으로 새 문화창조의 산실이 되고자 다음과 같은 대학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부단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대학위상을 정립하는 일입니다.

21세기를 전망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지식집약적 정보산업사회에 대비한 도덕적 인간성과 창조적 전문성이 조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대학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여망 그리고 대학의 이념이 조화되고 입지특성에 입각한 교육목표의 정립과 미래지향적인 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으로 뚜렷한 대학의 모습

으로 정착해 나갈 것입니다. 두번째는 대학운영의 민주화와 새로운 학풍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종전의 타율적이고 하향적인 대학운영으로부터 자율성과 책임성있는 행정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교수의 학문적 권위를 확립하고 대학 구성원간의 신뢰증진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시켜 학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양적팽창에 급급하여 획일적으로 운영되어온 교육방식을 지양하고 대학교육의 질적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와 연구·교육여건의 기반 확충 그리고 발전된 교육 학습방법의 개발·활용, 평가방법의 개선과 교수의 질적향상 등을 꾀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학술연구기능을 촉진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기능을 우선하던 대학의 모습을 연구의 중심적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교수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며 연구소를 활성화하고 국제간학술교류를 촉진시켜 창조적 학술연구의 기능을 다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사회봉사의 기능을 확대함에 있습니다. 본 대학이 국가와 인류사회의 어려운 과제들을 연구·봉사하여야 하는 대학의 보편적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그 입지상 속명적으로 부여받은 지역발전과 관련한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본 대학에 설치된 탐라문화연구소, 방사능이용연구소, 해양자원연구소, 아열대농업연구소, 관광산업연구소, 지역발전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사회발전연구소, 과학교육연구소, 축산연구소, 동아시아연구소 등의 연구에 지역문제 연구과제를 개발하여 연구토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학술적, 전문기술적 봉사의 기능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의 대학발전 기본방향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그리고 교수와 학생들의 강한 학문 추구적 의욕으로 실현될 때, 우리대학교는 제주에 입지한 특성을 독특하게 살려서 시대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역사적 격동기를 의연하게 대처하는 국립 제주대학교로서 부여받은 사명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총장 金澤玉

社說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해답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준 사람은 없다. 그 이유는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인생과 삶의 뜻을 규정하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통성이 제대로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모두는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다.

이 엄연한 현실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은 사람의 일생이란 사람과 사람간의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이라는 점이다. 부모와 나, 형제와 나, 하나의 만남이다. 선생님과 친구를 모두가 나의 생의 과정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다. 그러나 이들과 헤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나의 생은 계속된다. 부모와 형제들도 언젠가는 나와 헤어지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내가 부모가 된다. 국민학교, 중학교때 만났던 선생님과 친구들도 헤어졌고, 고등학교에서부터는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과 만나서 그들의 관계속에서 나의 삶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어디에서 무엇이 계기가 되어 어떤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느냐가 다를 뿐이지 나의 생이란 결국 남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여러분들도 얼마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다.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때의 선생님과 친구들보다는 대학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관계가 나의 새로운 삶의 과정으로 시작된다. 그러므로 어느 대학교, 어느 학과를 다니느냐가 앞으로 나의 삶의 방향과 모습을 결정시켜 주는 결정적 요인이다.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까지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떤 자연적 틀에 의한 피동적 생활이기에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자신의 인생이 타율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대학생활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한 것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곧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의무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대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싸움이다.

자신과의 싸움이 싸움에서 4년간 지속된다. 대학생활의 성공여부는 곧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회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사회생활은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또 단과교류를 위해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는데, 이에따라 우리대학교 교수 6명이 학술정보교류를 위해 90년 11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런던 대학을 방문한 바 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관계속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따라서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 일생생활의 모습이 달라진다.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보다는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였느냐이다. 이때문에 어느 학과에 입학하느냐라는 것은 입시생들이 앞으로 남을 3분지2의 인생의 방향과 모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처럼 중요한 학과의 선택에 있어서 자신이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의 종류와 인생의 설계와는 무관하게 성적 수준에 의존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자율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대학생활에서는 우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자신의 뜻을 정하여야 한다. 이 뜻을 정하는 것은 왜 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각자의 대답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뜻이 정해지면 그것의 성취를 위한 집념이 나오고, 이 집념은 곧 삶의 목적의식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은 졸업후 어떤 일을 하느냐에 의해 구체화된다. 일이란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일에는 사회적 및 도덕적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다. 일을 하지않고 놀고 먹는 失業者는 사회적 및 도덕적 범죄자이다. 어떤 성격의 일을 하느냐는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시켜주는 평가기준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일을 한다는 것이 사람을 사회적 동물로 되게끔하는 필요조건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함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남들의 관계속에서 생활해 나간다는 뜻인데, 남들과의 관계속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곧 일을 수행하는 직장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는 대학에서의 전공분야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무슨 분야를 전공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모습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는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때, 입시생 각자가 가지고 있는 뜻과 꿈과는 무관하게 성적수준에 맞추어 주위에서 진학할 학과를 추천해주거나, 입시생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이며 또한 위험한 인생의 투기인지를 알 수 있다. 금년도 입시생 여러분들은 과거의 선배들과는 달리 무책임한 추천의 권유나 불인 스토리 인생의 투기에서 해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지면 안내

- 2면: 제주대학교의 미래상
- 3면: 도서관·장학제도 소개
- 4면: 수험생을 위한 제언
- 6~9면: 각학과 소개
- 10~12면: 신입생모집 요강
- 12면: 기사

외국 5개 대학과 자매결연

각종 학술·정보교류 국제화시대에 적극대처

오늘날 지식의 홍수시대를 맞아 '대학국제화시대'라는 필연적인 명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우리대학교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대학과의 국제 학술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우리대학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대학으로는 일본의 도호쿠대학, 나가사키대학, 류큐대학과 미국의 퍼듀대학, 네브라스카 대학교 등 2개국 5개대학으로 지난 84년부터 교수·학생 상호방문, 학술대회개최 등 여러분야에서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들어서는 지난 2월5일 일본 나가사키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는데 이어 3월5일에는 류큐대학과도 협정이 체결돼 대학 국제화에 또 하나의 장을 열게 됐다.

류큐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체결 주요 내용을 보면 교직원 및 학생의 교류·학술정보 및 자료의 교환·상호 관심있는 연구분야에 대

한 공동연구 및 기타 문화교류 등으로 지금까지 우리대학교 졸업생 3명이 류큐대학 장학금으로 초청돼 유학하고 있고 해양학과 교육정보수가 류큐대학 초청으로 파견연수(91.2.6~6.15)를 다녀왔다.

나가사키대학과는 지난 88년 1월 26일 수해양분아에 한해서 우리대학교 해양학과와 나가사키대학 수산학부간에 체결돼 지금까지 △나가사키 대학원 해양생물연구과교수 16명, 대학원생 23명이 우리대학교 주최 '해양과학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참석 및 우리대학교 시설 견학차 방문(88.10.18~19) △우리대학교 교수 2명, 조교 1명, 학생 36명이 나가사키대학 주최 '대학발전을 위한 세미나' 참석 및 시설 견학차 나가사키대학 방문(88.7.20) △어업학과 손준태교수 나가사키대학 초청으로 파견 연수(88.10.1~90.3.31)등 학술교류를 한 바 있으나, 올해 2월5일 전 학문분야로 확대 체결됐다. 이에따라 지난 9월26일부터 10월2일까지는 김영목총장과 부만근기획실장등이 내년 4월 중순에 우리대학교 공과대학과 나가사키대학 공과부가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인 '한일 하이테크 심포지움'과 양교의 학술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구체적인 교류내용 및 방법전반에 걸쳐 협의의 차이를 방문하기도 했으며, 현재 기관공과과 고장권교수가 나가사키대학에 파견연수중(91.2.5~92.2.4)이다.



◇지난 3월5일에 있었던 우리대학교와 일본류큐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조인식 광경.

우리대학교 1명 우리대학교 주최 국제학술교류세미나에 참석(84.10) △우리대학교출신 3명 도호쿠대학 농학부대학원 석사과정에 유학(85.3) △우리대학교 교수 2명이 재학생 10명과 함께 도호쿠대학 주최 국제학술교류세미나에 참석(86.12.4~12.25) △도호쿠대학교수 2명이 우리대학교 주최 학술교류협정 3주년기념 제주도축산진흥을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움에 참석(87.8.21) △우리대학교 축산학과 강민수교수 일본 도호쿠대학 농학부 파견 연구(87.9~88.2) △도호쿠대학 5명 초빙

한일 학술심포지움 개최(89.10.30~10.5) △우리대학교 교수 3명 학술정보교류차 도호쿠대학 방문(90.9.30~10.5) △학술논문 및 간행물 수시 교환 등이다. 올해들어서는 지난 10월28일에는 우리대학교 농과대학과 도호쿠대학 농학부간 학술교류협정체결 제7주년 기념 '제3회 한일 농업과학 세미나' 나가사키대학과 아열대농업연구소 공동주최로 자연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편 미국의 네브라스카 리컨대학과는 지난 90년 6월 2일 교수, 학생, 교직원들의 장



세살 아이의 맑은꿈

창간 1989년 4월 22일

골목을 누비며 '신문이오'소리치는

소년의 목소리에는

세살 아이의 맑은 꿈을 실어나르는

때문지 않은 건강함이 흐릅니다.

꾸밈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신문정신'을 소중히 하는 한라일보

돌하르방이 지키는 제주섬의

어귀에서부터 남녘 끝 마라도까지

인간과 자연의 소중한 호흡을 전합니다.



漢 拏 日 報 社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568-1
☎(064) 50-2114

濟州를 사랑하는 마음

■ 한라일보 5대사업 ■

- 학술부문 - 제주도문제세미나
- 체육부문 - 한라일보기 탁구대회
- 문예부문 - 신춘 '한라문예'
- 출판부문 - 한라연감 편찬
- 예술부문 - 독자사진공모전

◇제주대학교의 미래상

'세계속의 대학'으로 도약 준비 완료

지방 명문 대학 건설은 시간문제



부만근

(기획실장·행정학과 교수)

1. 새 세기를 대비한 발전계획 수립

제주대학교가 설립된 것은 韓戰後인 1952년이었습니다. 당시의 제주도는 경제사정에 어려웠으나 고등교육을 통한 지역인재의 양성이 제주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도민들의 한결같은 소망과 의지가 초급대학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주초급대학은 道立으로서 도민부담으로 운영됨으로써 제주대학교와 도민들간의 뉘그러 뉘수 없는 관계는 이같이 설립당시부터 맺어져 왔습니다. 제주초급대학은 설립 3년후인 1955년에 4년제 도입대학으로 승격되었고, 1962년에는 國立으로 이관되어 국가부담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1982년에는 숙원이던 종합대학으로서 실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대학교의 성장과정에는 어려운 점이 적지 않았지만 도민들의 애정어린 성원, 정부의 지원과 대학자체의 발전의지가 어우러져 지역사회와 국가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면서

고 있는 학문적 역할과 시대적 사명, 나아가 변화해 가는 사회적 욕구를 제대로 감당하면서 다가오는 21세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대학자체에서 長期發展計劃을 수립하고 『世界속의 대학』을 지향하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계획을 통하여 제주대학교는 대학의 이념과 입지적 특성을 조화시키면서 앞으로 10년간(서기 1992~2001년)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 장기발전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제주대학교의 사명과 역할, 그리고 발전기반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濟州大學校의 使命과 役割

제주대학교는 "眞理, 正義, 自我, 進取"를 교훈으로 삼고 교육과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대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理念은 교훈에 명시된 바 그대로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의 추구를 진취적이고 전인격적인 자아를 형성하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이념아래 제주대학교는 학문연구,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라는 대학의 3대 使命(기능)을 균형있게 추구해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한 대학의 역할로는 첫째, 대학은 진리탐구의 道場, 사회적 정의를 지켜주는 지성의 요람이므로 대학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주체성과 정통성을 견지하여 학문적 卓越性을 계속 추구하기 위한 연구에 전념해 나아갈 것이다.

둘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전문지식의 습득과 함께 전체로서의 인간교육을 조화시켜 나아갈 것이다. 대학은 지식의 탐구만을 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후기 산업사회인 오늘날에는 인간의 非人間化가 크게 문제되고 있기 때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이론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은 대학이 갖고 있는 사회봉사기능일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 개설에 애써준 지역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특히 제주의 지정학적 입지는 東西진장의 완화에 따라 태평양의 중심지로서 앞으로 사회경제적인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제주대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 역시 제고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제주지역에 대한 연구를 특성화하여 갈 것이며 학과 및 연구소의 설치에 있어서도 지역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다.

3. 大學發展의 基本方向

제주대학교는 앞으로 10년간의 발전목표를 양적 성장과 질적 내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산학협동 체제를 더욱 다져 나간다.

셋째, 균형잡힌 종합대학의 실현을 위해 의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을 연차적으로 신설하고 고고산업사회 및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학과를 신설한다.

넷째, 교육내용의 사회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체제를 고도화하고 교양교육을 강화하며 미래지향적인 교육방법을 개발 보급한다.

다섯째, 우수교수확보에 노력하고 연구활동의 지원강화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제주대학교는 2년 전부터 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를 교수로서 신규채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국 저명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를 다수 채용하여 교수의 자질을 더욱 향상시킨다.

여섯째, 교수의 연구와 학생의 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원행정체제를 강화하고

기로 한다.

(1) 學生福祉의 向上

학생들의 교양과 정서를 함양시키고 건전한 대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활동시설과 기숙사, 보건진료소를 확충하고 그 운영개선을 기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소비조합운영을 내실화 한다. 소비조합은 구내식당과 매점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구이다. 따라서 구내식당의 식단개선으로 영양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매점의 판매 품목을 확대하여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구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 소비조합운영에 있어서 조합員制를 실시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인 학생들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시내버스의 증차로 학생들의 통·하학에 불편이 없도록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남학생 기숙사를 증축하고 여학생 기숙사를 신축한다. 현재 제주대학교에는 학생기숙사가 2동(수용능력 4백20명)이 있으나 앞으로 1천5백명 수용규모로 확장함으로써 전체학생의 15% 정도를 입사할 수 있게 하여 지방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한다.

여섯째, 보건진료소와 약국을 설치운영한다. 현재 시설로서 현재 시공중인 학생회관이 1992년에 완공되면 학생들의 課外生活이 불편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시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보건관리, 질병의 진료, 건강상담을 위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의사를 상주시키는 한편 구내약국도 설치할 계획이다.

(2) 獎學制度의 擴大

학생들의 면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종 장학금을 확충하고 현행 장학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장학금의 확충에 노력한다. 제주대학교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의 30%정도의 교내 장학금이 되어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교외 장학재단과의 유대 및 산학협동체제를 강화시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외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校內·外 장학금 수혜학생은 전체의 41% 정도로 전국사립대학 평균인 24%보다 훨씬 높으나 앞으로 이

를 45% 수준까지 높이고 장학금액도 대등화함으로써 성적우수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발전기금에 의한 장학금도 지급하게 된다. 제주대학교는 국립이므로 교육·연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해결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財政은 한계가 있으며 또 오늘날과 같은 高度情報社會에 있어서 대학발전에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투자를 만으로서는 정상적인 대학발전에 충분하지 못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그래서 어느 국립대학도 만족할 만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이 속죄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제주대학교에서는 연구와 教育興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自敎의 노력으로서 1991년부터 제주발전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대학 교직원, 동창, 사회복지가,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이 發展基金造成 사업은 현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된다. 조성된 기금은 교수들의 학술연구, 시설확충,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에 사용하게 되나 그중 일부는 성적우수학생에 대한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사기를 높여주게 된다.

셋째, 근로장학금제도를 확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근로의 보람을 알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함양시킨다. 넷째, 학생들의 부처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도내 有關機關 및 기업체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勤職(아르바이트)취업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직종을 개발함으로써 재학생의 취업기회를 넓혀 나간다.

(3) 進路對策의 強化

학생들의 대학 졸업후에 원하는 직장에서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就業相談室과 취업자료실 운영을 강화하며 대학차원의 就業對策委員會를 상설기구로 운영한다. 또 제주도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취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동적 차원에서 제주대학교 졸업학생의 취업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해 나간다.

그런데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실력이며 그중에서도 外國語실력에 합격·불합격이 좌우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外國語教育館에서 외국어에 대한 특강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육지부 학생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외국어 구사능력을 기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

이상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의 未來像을 개괄하고, 그중 학생복지 및 진로지도부문에 대해서는 세부발전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제 大學自律權이 신장되어 가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전국의 모든 대학들은 발전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제주대학교는 이러한 시대적 狀況을 깊이 인식하고 교직원, 학생, 동창회원이 三位一體가 되어 대학발전을 위한 지혜를 짜내고 이를 실천하는 自敎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라도 이러한 노력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제주대학교의 발전이 제주도민의 自存心과 직결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제주도 발전을 위해 제주대학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지 잘 알고 있다.

당초 제주도민들의 한결같은 소망과 의지의 結晶으로 설립된 제주대학교가 앞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애정어린 성원을 기대한다.

濟大 전가족 시대적 상황 깊이 인식...대학발전에 주력

현재와 같은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이제 제주대학교는 30여만명의 아라비아숫자에 웅대한 교육·연구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4개 대학원, 8개대학 53개학과에 8천여명의 학생과 8백여 교직원들을 포용하는 제주지역 유일한 종합대학으로서 육지부 어느 지역의 지방대학과도 충분히 어깨를 겨룰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제주대학교 자체의 잠재력과 도민들의 높은 교육열, 그리고 제주지역이 갖고 있는 국·내외적인 입지조건을 감안할때 앞으로의 제주대학교는 종전보다도 더 빠르고 건실한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제주대학교는 대학이 맡

은 단순한 지식인을 양성하는 것만으로는 제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때문에 제주대학교는 학생교육으로서 지식의 주입이나 기술의 습득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전체로서 바라보고 예술, 사회, 종교등을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知能을 아울러 갖추고 넓은 시야를 가진 건전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데 힘을 기울인다.

셋째, 지역사회의 요구와 특성에 적극 부응해 나아갈 것이다. 제주대학교의 개설은 이미 지적과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최우선과제로 한다. 둘째, 대학이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實化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地方名門大學건설에 두고 있다. 앞으로 10년내에 어느 지방대학에도 뒤지지 않는 특색 있는 대학을 만들자는 것이 장기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제주대학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그 발전이 보다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대학발전기반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대학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와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최우선과제로 한다.

둘째, 대학이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도서관의 시설과 장서를 대폭 확충한다.

일곱째, 학생들이 보람있는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의 증진에 만전을 기한다.

4. 學生福祉의 增進과 進路指導

이상에서 대학발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제주대학교는 이와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각 분야별로 세부발전방향을 수립하여 그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중 학생복지와 진로지도분야에 대해서만 살펴보

하고 구내 자동전화등의 통신시설도 대폭 확장한다.

셋째, 학생들의 면학시설을 적극 지원한다. 중앙도서관의 장서를 확충하고 자연과학도서관을 본관으로 건립하여 학생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각 단과대학별로 과제도서관, 독서실, 고시반 등 면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넷째, 학생들의 문화활동공간과 간이체육시설, 레크레이션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여가를 이용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학생기숙사 시설을 확충한다. 기숙사에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수의 증가와 여학생수의

濟大漫評



21세기의 주역은

정상정복의 동반자!



정치마케팅, 리서치, 이벤트의 정상을 위한 동반자

인간은 누구나 정상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정상의 길은 멀고
험합니다.
정상은 피나는 노력과 역경과 끈질긴 집념을
요구합니다.
경험과 능력을 지닌 동반자가 있다면
정상은 그리 멀지않은 것입니다.

정치마케팅, 리서치, 이벤트의 정상

원 커뮤니케이션

TEL. 56-8150 FAX. 56-4155

대학의 심장 중앙 도서관

92년부터 전국대학과 온라인망 구축 정보화시대 걸맞게 도서 20여만권 소장

흔히 말하기를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부라고 한다. 그만큼 대학에 있어서의 도서관은 학술연구를 위해 중추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을 대학답게 하기 위해서 훌륭한 교수진과 시설, 그리고 학술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고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기능을 지닌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도서관이 핵심이 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학의 사명은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야 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할 때에 대학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도서관이야말로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1.개황

본 제주대학교 도서관은 1952년 5월 도립초급대학으로 개칭을 인가되어 당시 도서 60여권이 문고 형식으로 출판하여 1955년 4월 도립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면서 대학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잡게 되었다. 그 후 농학부가 세워져서 이설함에 따라 농학부에 본관이 설치되어 있다가 1980

년 5월 27일 현재의 아라동 캠퍼스로 이전, 본관 서쪽, 지금의 박물관 자리에 농수산학부 본관을 통합 개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제주대학교가 198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되면서 이제 종합대학의 규모에 상응하는 보다 큰 규모의 현대적인 도서관이 절실히 요청되어, 마침내 1984년 9월 거대한 신축 도서관 건립을 착공하여 1986년 9월에 완공 이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종합대학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의 신축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784,842㎡이고 계획에 맞추어 냉방(에어콘) 및 난방 시설이 되어 있어 쾌적한 온도가 유지되어 언제나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리고 장서 운반용 엘리베이터(Elevator)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속한 도서 대출을 위하여 각 서고를 연결하는 덤웨이터(Dumb-waiter) 시설을 구비한 현대식 건물로 신축되어 있어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열람실 좌석수는 1,450석에서 해마다 장서가 증가함에 따라 조금씩 줄어 들고 있으나 각실마다 자료를

분리하여 배열되어 있어 교수 및 학생이 학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도서관 38명 전 직원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2.조직

관장, 수서과(서무계, 수서계), 정리과(동서계, 양서계), 열람과(대출계, 장서계, 참고도서실, 과제도서실, 정기간행물실, 외국학술잡지실, 향토자료실, 특수자료실, 기증자료실).

3.직원구성

관장(교수):1명, 사서직:15명, 행정직:2명, 기능직 및 기성회직:20명, 합계:38명.

4.장서현황

- 1) 단행본 207,407권(1991. 10. 현재)
- 2) 학술지 795종(“)
- 3) 교양잡지 429종(“)
- 4) 석·박사학위논문 24,480권(“)
- 5) 일간신문 및 기증신문 57종(“)

5.일반열람실 이용방법

일반열람실로서는 제1, 제2, 제3열람실 및 대학원열람실이 있으며 휴대품을 갖고 들어가 자유로이 공부할 수는 있으나 좌석을 장시간 독점하기 위하여 퇴실후에도 개인 소지품을 방지하는 행위는 일체 금하며 본교생(도서관 대출증 또는 학생증소지자)이나 교직원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6.대출실 이용방법

서고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대출(반납)하는 곳으로서 학생증과 도서관 대출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7.개가제열람실 이용방법

개가제 열람실은 필기도구 이외의 휴대품은 소지품 보관소(2층)에 보관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이곳에 비치된 자료는 대출되지 않는 대신 복사 시설을 갖추어 봉사하고 있다.

1)참고·과제 도서실

연구조사를 위한 각종 참고자



◀학우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
-중앙도서관 제1열람실

료, 백과사전, 인명사전, 지명사전, 연감, 편람, 법규집 및 학생들의 과제 작성에 필요한 교과과정과 관련된 교재, 부교재 등 각종 도서를 개가제로 비치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2)정기간행물실

국내발간 각종 학술지, 교양잡지, 연구보고서, 각대학논문 및 요람등을 개가제로 열람하고 있으며, 진학 및 취업에 관한 최신 정보지도 비치하고 있다. 단 석·박사학위 논문은 반개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3)외국학술잡지실

외국에서 발간하고 있는 학술잡지 및 연구보고서를 비치하여 개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의 일간신문도 비치하고 있다.

4)향토자료실

제주도에 관한 각종 문헌 및 제주인이 저술한 도서를 구비하여 제주도에 관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자료가 마이크로 자료화되어 있어 리더프린터(Reader-Printer)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5)특수자료실

복합자료 및 공산권 자료를 비치하여 복합 및 공산권이 실상을 이해하는 데 좋은 학술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6)기증도서실

동창회, 교내 교직원, 제일제주 청년회, 사회인사들로부터 기증된 도서를 비치하여 반개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8.기자재 보유현황

(1) 퍼스널컴퓨터 2대 (2) 자동도서목록기 1대 (3) 프린터기 1대 (4) 모사전송기(FAX) 1대 (5) 마이크로필름 리더프린터기 1대 (6) 환등기 1대 (7) 절단기 1대 (8) 투영기 1대 (9) 영상막 1개 (10) 필름관독기 1대 (11) 복사기 4대 (카드복사기 2대, 행정업무용 2대).

9.전망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들은 날로 급변해가는 사회의 흐름 속에 균형적인 적응을 위해 자기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리라 본다.

21세기를 위한 도서관 시설 확충과 학술정보 전산화 구축을 위한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나 서울대학교를 주축으로한 전국대학 도서관과의 온라인망을 연결하여 각종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입수할 수 있는 도서관 전산화가 1992년도부터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소프트웨어 개발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학생들의 이용에 일익을 주리라 확신하며 또한 위 9항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각종기기를 도입하여 자동화 시대에 발맞추어 각종 사무를 자동화 처리하고 있다. 중단없는 전진만이 발전의 고지를 정복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이제 도서관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더욱 알차게 수행하기 위해 꾸준한 계획과 실천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싶다.

홍익준(중앙도서관 사서)

◆본교의 장학 제도

전교생의 38% 장학 혜택 받아



◇올해 8월에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

대학의 학비는 고등학교의 교육비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대학의 등록금은 1학기당 국립대학인 경우 인문, 사회계열이 50여만원, 자연계는 60여만원 사이이나 사립대의 경우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1백만원내외의 학비가 필요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학비의 조달에 있어서 겪는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고 생업전선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학에서는 장학금 지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원래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원함으로써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현재 사립대에서는 사학재정의

어려움으로 장학금 지급에 편중이 어렵지만, 반면 국립대는 일정한 정도의 장학금 수혜 수준에 크게 무리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장학금 제도를 운영, 수혜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대학교의 장학금은 크게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되어 지급하고 있다.

교내 장학금의 경우 학교내의 예산이나 본대학 장학재단내의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고 교외 장학금은 공공장학금, 각종 장학재단, 특수단체 등에서 지원되는 것을 말한다.

본 대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의 종류는 등록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학비감면, 근로장학금, 학교장학재단 장학금등의 교내장학금과 공공장학금, 각종 장학재단 특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교외장학금 그리고 사립대학 학생들에 한하여 한국장학회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도장학금등이 있다.

1. 교내장학금

'91년도 2학기 현재 본교에서 학부(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합쳐 7천4백여명이 등록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다.

교내장학금의 경우 종류별로는 성적우수, 가계곤란, 보훈대상자, 교직원자녀, 체육특기자, 3형제자녀 및 기타 면학분위 조성에 기여한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근로장학금은 교내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들 장학금은 학업성적 성취를 기준으로 일정한 성적 이상이 면 수혜대상자가 되며 '91학년도(1,2학기포함)의 전체 등록학생수에 대한 장학금수혜학생수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32.86%의 학생이 교내장학금을 받았고 금액으로 본 전체등록금액의 25.89%의 상당액이다.(도표-1 참조)

이와 더불어 근로장학금은 학교내의 각 학과사무실, 행정사무실, 실험실등에서 사무보조나 단순노동을 제공하고 대학이라는 기관에 있어서의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기회도 되며 아울러 그 대가를 받는것을 말한다.

특별히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을 위하여 전제수석 합격자와 단과대학 수석합격자 등 등록금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을 1학기만 면제하고 또 입학시에 한하여 본 대학교 장학회에서 등록금과는 별도로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또한 학력고사 성적이 280점 이상자에 대하여 성적이 평균 B 학점 이상 유지하는 자는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특별장학금도 지급한다.

(단, 사립대학 지원자는 4년간 사도장학금으로 대체)

2. 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은 공공기관이나 각종 장학재단, 특수단체등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을 말한다.

'91학년도에 각종 교외단체(장학재단 또는 개인·기타)에서 지급한 것을 보면 한국장학회등 총 37개 단체에서 연 560명에 대하여 3억1천2십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으며 1학기당 280명에 교외장학금을 지급하였다.(도표-1 참조)

이밖에도 국민은행, 제주은행등에서는 당장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의 추천으로 등록금 전액을 용자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사도장학금

국립장학금 학생으로서 졸업 후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자질이 뛰어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학교별 입학정원의 40%내 해당자에 대하여 적용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으로

○우수장학금:1인당 연간 100만원

○추천장학금:1인당 연간 150만원

○특별장학금:우수 또는 추천 장학금에 100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단, 추천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출신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중 우수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에서 선발하며 특별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직할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장차 교원으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선발 지급하고 있다. ('91학년도 지급현황 도표-1 참조)

이와 함께 우리대학의 장학제도의 운영은 대학이 학문의 연구와 학생들에게 학업열을 증진시키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대학의 질적·양적 발전을 이룩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고등학교때부터는 달리 성적발표가 개개인적으로

로 통보되는 대학에서의 장학금은 바로 그 학과에서 본인의 성적이 좋고 낮음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며 장학금이 되기 위해서는 성적을 올리기 위한 선의의 경쟁도 있게 마련이다.

아울러 우리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서 등록금이 사립대에 비하여 저렴할 뿐만아니라 '91학년도 재학생에 대한 장학생 비율이 37.5%에 달해 어느 국립대학에 비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장학금 수혜율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앞으로 우리대학교는 우수한 신입생유치는 물론 재학생들에게도 경제적 뒷받침과 함께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발전기금 및 교내장학금을 더욱 확충시키고 교외 장학재단, 유수기업의 장학재단 유치를 통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나아갈 것이다.

【도표-1】 '91학년도 장학금 지급현황

구분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사도 장학금		사도 계
	학비감면	근로 장학금	공공 장학금	장학재단	기타 장학금	장학재단	기타 장학금	장학금	장학금	장학금	
수혜인원	4,565	282	58	249	295	25	162	5,636			5,636
수혜금액	1,933,000	56,400	30,416	142,472	158,935	8,884	91,000	2,421,107			2,421,107
구성비(%)	81.00	5.00	1.03	4.42	5.23	0.44	2.88	100			100

○장학담당관실 '91학년도 1,2학기 장학금 지급 통계임.

○1,2학기 학생수 연 14,800명중 37.5%인 5,636명이 장학혜택을 받았다.

○구성비는 전체 수혜 인원내 대한 비율임.

〈장학담당관실 제공〉

단과 및
입시전문



龍門學院

시 청 뒤
☎ 58-0003~5

●대입정규종합반

성적우수자-장학금지급

●전문대 종합반(주·야간)

수시입학가능-현재 상담접수중

●고교신입생을 위한 영어·수학 특강 (현 중3생)

개강:12월 11일(수)

●중·고과정 영·수 단과반

(매월초개강)



◆본원의 특징

완벽한 교육시설

- VTR시스템에 의한 교육방영시설
- 최신의 음향, 조명 및 전산관리시설

철저한 학습관리

- 담임제에 의한 개인별 출결관리
- 개인성적 및 진학지도의 전산화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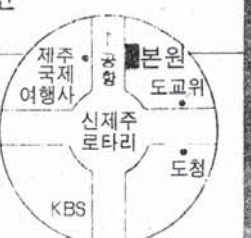
쾌적한 교육환경

- 편리한 교통편·무해한 주위환경
- 위생적인 구내식당, 넓은 휴식공간

단과전문

등 용 문 학 원

신제주로터리
☎ 42-9220, 46-9900



'92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라”



박 태 수
(학생연상상담지도부장·조교수)

1. 학과에 대한 인식

'92학년도 대학별 입시요강이 발표됐다. 전기대 원서 접수 마감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고3수험생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입시 마무리 준비가 한창이다. 수험생들은 이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대학 및 학과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대학과 학과를 정해 놓고 어느 정도 확고한 자세로 마감일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아직도 많은 수험생들이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여 학과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전문지인 '대학'에 따르면, 수험생들의 36.3%가 대학에 설치된 학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응답을 했고, 잘 알고 있다는 학생은 3.3%에 불과했다. 이러한 실정은 현재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수험 준비에 온 힘을 기울이는 하나 주로 고교 지식의 주입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과는 다르게, 수험생들의 학과 선택에 대한 의식은 자못 견조하다. 같은 조사에서, '학과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수험생들의 86.3%가 '이상과 적성에 맞아야 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40.2%가 '적성과 흥미에 잘 맞을 것 같아서', 34.2%는 '전망보다는 꼭 공부하고 싶은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같은 응답에서 우리는 수험생이 학과 선택을 할 때, 자신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자신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긍정적인 자아 발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원서 마감일이 다가오면 이러한 그 3%의 자아실현적 현실적 이해득실과 부모나 교사의 의사에 따라 힘없이 무너지고 만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처럼 수험생의 자아를 무너뜨리는가?

2.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실은 경쟁의식이 너무 지나쳐 무력화되고 학력만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고, 이것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많은 수험생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 흥미 그리고 가정 환경 등의 조건을 무시하고 미래

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 없이 대학에 진학하기만을 갈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너무나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1990년도의 경우, 당해년도 졸업자 767,571명중 605,258명이 대학 입시에 지원하였고, 그 해의 재수생 지원자 283,890명을 합하면 889,148명이 학력고사 준비를 한 셈이지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학생은 입학정원 344,855명에 불과했다. 결국 한해에 입학 준비는 하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이 무려 544,293명이나 되었다. 급변하는 이 보다 더 많은 수험생이 대학 지원에서 탈락될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탈락되는 수험생들도 입학한 시켜주면 모두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이들은 또 졸업 후의 취업을 걱정해야 한다. 1990년도의 대학졸업자(전문대, 교육대 제외) 165,916명중 취업자는 79,975명으로 48.2%에 불과하며, 이들이 대학에서 4년간 공부한 학문이 실제로 현실 사회에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대학을 학문하는 곳이라기보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대입학력 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일류대학, 인기 학과에 들어가는 길이 가장 선택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한해 70~80만의 진학예정자 가운데 일류대학, 인기 학과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몇명이나 될 것인가? 마찬가지로 의사라는 직업에 흥미나 적성이 맞지 않는데, 사회적 인식이나 수입이 좋다고 하여 의과대학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진실로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가?

3. 자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간은 적합한 자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 적합한 자아를 지닌 사람은 안정되어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수용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즉 그는 자신이 가진 능력, 적성, 신념 그리고 가정환경 등을 그의 행동의 적합한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패러슨(1973)이라는 교육학자는 자아실현인의 특성을 '현실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지각과 현실과의 보다 편안한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보듯이 자아실현인은 자신의 제반 여건을 정확하게 지각함으로써 솔직하며, 꾸미거나 가식이 없이 현실에 적응하는 인간이라 하겠다. 현실에 대한 적응은 곧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과 관련된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각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자기



◀ 최종적으로 학과를 선택 결정하는 것은 수험생 자신이다. (사진 지난해 입시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줄서 있는 우리대학 지원생들)

지각이 곧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치란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하는 믿음과 신념'을 의미한다. 수험생의 장래 진로의 첫 관문이 될 학과 선택도 수험생 자신의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일 학과의 선택이 자신의 가치에 반대된다거나 잘 맞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의 삶은 충족감이나 만족, 대인에 좌절과 절망에 느끼게 될 것이다.

4. 올바른 학과 선택

학과 선택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 이상에 맞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험생은 그가 지니고 있는 적성, 흥미, 능력, 의욕에 적합한 학과 선택을 위하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다. 수험생은 이미 2학년 때 선택하여 지금까지 공부해 온 인문계와 자연계의 계열 선택이라는 전제 위에 ①자기 이해 ②직업세계 이해 ③미래사회의 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자기이해를 위해서는 자신의 적성과 성격에 대한 심리검사와, 자신의 가치관, 학력, 신체적 조건, 그리고 부모의 기대와 가정의 경제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이다. 이미 이와 같은 요인들의 평가는 수차례 받아왔거나 고려해 왔을 것으로 보이나, 재차 자기 이해를 위해 각 요인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도록 한다.

둘째, 직업세계를 알기 위하여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수집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기 때문에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노동부 국립중앙직업연구소나 리쿠르트사와 같은 직업정보기관과 연결하여 주기적으로 정

보를 제공받는 일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직업정보도 학교 자체에서 수년간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제공해 왔을 것으로 보이나, 수험생 자신도 이러한 정보를 컴퓨터로 수집, 정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특히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학과 특성과 졸업후의 직업전망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셋째, 미래사회를 전망하는 일이다. 현재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2000년대의 '고도 산업 및 정보화 사회' '다양화된 사회' '국제화된 사회'로 표현되는 그러한 사회의 주역들이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단순 기능 인력이 감소되고 숙련된 다기능의 인력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새로운 직업을 생성한다. 이러한 미래의 예견은 그리 쉽지 않으며 또한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 대한 산업발전추이, 인구수급전망, 유망직종과 사양직종 등 관련 정보를 전문기관을 통해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상 학과 선택과 관련된 세 가지 준비 사항을 제시했으나 얼마 남지 않은 원서접수 기간에 이러한 정보를 수집·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학교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미래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험생이 자기 이해를 위해서 제시한 준비 사항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일이다.

결국 최종적으로 학과를 선택·결정하는 것은 수험자 자신이며, 학과 선택으로 인한 성공 여부, 즉 자아실현의 정도는 수험자 자신의 행·불행은 물론, 나아가서 가정, 사회,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차분한 마음으로 정리를

이제 激激(?)의 날을 30여 일 남겨둔 대입 受驗生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不安과 焦燥感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라 생각한다.

그동안 晝夜로 책과 씨름하며 한때는 挫折의 經驗도 가졌을 受驗生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몇마디 助言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절대로 焦燥하거나 緊張하지 말고 지금껏 해온 자신의 style로 시험 당일까지 꾸준히 컨디션을 維持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焦燥한 나머지 밤을 샌다든지, 한꺼번에 많은 과목을 整理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만큼 疲勞가 나타난다. 평소와 준비해온 자신의 스타일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구 과목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기본 공식이나 중세 문법 따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암기 과목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루에 2~3과목을 정하여 輪廻制로 처음부터 정리하여 자신이 가장 脆弱 科目 또는 部分을 集中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할 수 있다'는 自信感을 가지고 급하지 않고 흘러내리듯 말고 차분히 정리하여야 한다.

둘째로, 健康에 留意하여야 한다. 부모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먼저 자신이 잘 조절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보낼 수 있

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함부로 약을 복용한다든지, 잠을 설치다든지 하지 말고 잠을 잘 때는 雜多한 생각을 버리고 충분한 睡眠을 취해야 한다. 다급하다고 하여 子正을 넘기면서까지 책과 씨름하는 것은 그만큼 疲勞가 날 수 있다. 子正이 넘은 시간의 공부 期待하는 만큼의 效果가 없다고 본다. 대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적당한 運動으로 緊張을 풀고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하고 남보다 일찍 등교하여 교실이나 도서관을 이용한 아침 공부 效果가 클 것이다.

셋째로 주말을 이용하여 지금껏 실시했던 模擬考나 配置考 문제지를 다시한번 點檢하여 弱點을 찾아낸 자신의 점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신의 점수를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 요행으로 맞추었던 것은 맞은 것이 아니며, 반대로 조그마한 실수로 틀렸던 것은 맞은 것으로 환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確實한 自己點數의 平均値를 가지고서 選校選科함에 있어 參考資料로 活用하는 것이 좋다. 자신만큼 자신을 아는 사람은 없으니 말이다.

끝으로 자신의 適性과 자신의 能力에 알맞게 選校選科가 되어 원서를 제출했으면 외부로 나타나는 競爭率이나 주위의 紀要에 너무 신경 쓰지 말



김 창 준
(오현고 교사)

고 자신을 가지고 最善을 다한다는 자세로 堂堂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또한 시험 전날밤은 너무 緊張되어 잠이 오지 않겠지만 되도록 10시를 넘기지 말고 취침을 하고 당일 일찍 일어나서 준비물을 점검하고 시험장에 여유를 가지고 도착하여 1교시 科目(國史)을 정리하고 또 각 교시가 끝나더라도 지나간 시간의 과목을 생각하지 말고 다음 시간의 과목을 무작위로 훑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나는 자신 있다'는 굳은 覺悟로 合格의 榮光을 맞길 바라며 얼마남지 않은 期間 동안 그 동안의 勞力이 徒勞가 되지 않도록 착실히 마무리하기를 바란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라



김 병 호
('91학년도 전제수석·수교)

빛바랜 나뭇잎이 깔려 있고 낭만과 지성이 어우러진 대학의 교정을 걸어보고 싶다. 나만의 자유분방한 의식의 세계로 빠져들고 싶다. 학문의 자유를 느끼고 사상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 언젠가는 수험자 자신이 위해서 제시한 준비 사항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일이다.

끝내는 1년 길게는 3년동안 磨練하는 것은 수험자 자신이며, 학과 선택으로 인한 성공 여부, 즉 자아실현의 정도는 수험자 자신의 행·불행은 물론, 나아가서 가정, 사회,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청그린 날이 더 많았던 시절도 지금은 하나의 회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무질서한 자유가 조화를 이루고 분열속에서도 단단한 용어를 만들 수 있는 대학생활을 한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11월이다. 수험생에게 유난히 무더웠을 여름도 지나고 가을의 끝에 서있다. 대입시험도 멀지 않았다. 진로결정보다는 때로는 감박관념과 초조감이 더 깊이 파고 드는 때이다. 모른 것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할 시기에 더러는 자포자기도 하였을 것이고 좌절감에 빠진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 결국은 헛된 자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3년동안 빠져들게 느낀 결과이기에...)여지모 상황에서 대처하여 말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을 하고 싶다. 자신감이 결여되면 좌절감 절망감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안겨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 기어코 수학 문제를 영어문제 하나를 정성 들여 풀어냄으로써 나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구체적인 자신감을 갖는 것이 좋다.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 있으므로

로 주의.

다음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떨쳐 버리도록 하라. 흔히 대학입시에 가까워져 가면 '이러다가 시험에 떨어지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긍정적인 면으로 답변을 유도하도록 하고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좋다. 혼자만의 고민은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자신의 위치에 대한 회의감으로 자칫 발전하여 공부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반복학습을 최대한 효과있게 하도록 하라. 새로 배우는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매일매일의 학습요점을 최종 정리하고 이미 풀었던 문제중 틀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많이 풀도록 한다.

주관식에 대비하기 위해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많이 접하고 알기보다는 이해위주로 풀어나가도록 한다. 능률이 오르지 않거나 침체기에 빠질 경우는 효과적인 학습포인트를 높이기 위해 학습방법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아울러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자. 점차적으로 자신의 실력의 틀을 갖추어 나가는 시기이므로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大成學院

최강의 강사진으로 뭉쳐진 명실상부한 전통있는 학원

☎ 57-8881~2, 53-1131~2



※ 위치 KAL호텔 옆

저희 학원은 수험생들과 같이 숱한 어려움을 딛고 21년간 본도 사회교육의 장으로 혼신을 다하여 지역 사회 교육발전에 일조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2월 단과

개강 12월 3일(화요일)
고입반: 영어, 수학
대입반: 국어, 영어, 수학

겨울방학특강

개강: 1월 3일(수요일)

專門大入試班

개강: 1월 4일

大入綜合班

개강: 3월 3일

高入綜合班

개강: 3월 3일

◇나의 유학생 생활-일본

“시작 했으니 끝장을 봐야지”



고 유 봉
(해양학과 교수)

“3000m wire out”라는 傳言이 있자마자 거대한 해양조사 기기를 매달은 와이어가 깊은 바다가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아직도 北洋(북북대평양)의 바다는 차가웠고 엷게 심하게 불던 바람 탓으로 너울(swell)이 큰 쪽으로 출렁거리던 4월, 한밤중의 갑사 작업에다가 일본인 연구자를 틈에 끼어 유일한 외국인으로 동참하는 입장이었고 보니 여간 신경쓰이지 않았던 순간순간이었음을, 그래서 두달간을 북태평양의 洋上에서 겨우 외국생활 6개월만의 익숙지 못한 때에 지냈던 일 등이 지금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1965년 내고향 이땅에 수산·해양학분야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수산학과가 제주대학에 설치되어 1회로 졸업하고 海軍중위로 제대한 일년 후 일본 文部省장학생 시험에 합격하여 東京해대(海大) 국제공학과에 내린 것이 1973년 10월3일이었으니 지금으로부터 꼭 18년전의 일인 셈이다.

해방둥이로 태어나 軍시절을 제외하고는 고향과 부모를 떠나본 적이 별로 없었던 터라, 당시만 하더라도 문화가 크게 다른 학문적으로는 세계의 정황과 어귀를 나란히 한다는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되니 불안과 초조와 긴장의 나날이 아닐 수 없었다.

머리를 감을 때면 한웅큼씩 빠져나오다시피 하는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시뻘뻘로 “이제 나는 죽었구나”하고 생각하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기왕에 시작했으니 끝장을 봐야 되지 않겠나”고 스스로에 다짐하며 재직했다. 그 무렵 나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내 열방에 속소를 정하고 있던 우리나라 K대학의 모 조교수가 육십은 앞서나 수반되는 고통을 감내할 수 없어 정신적으로 불안해지자 정상적인 학업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대사를 통하여 귀국조치시키는 것을 보고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한다는 게 꽤나 어려웠던 시절이므로 다른 선배들로부터 東京大學에 대한 정보를 얻어볼 수 없었고 현지에서도 마땅한 의의상대가 그다지 없었던 외로운 시절이었으므로 이제 생각하니 더욱 감회가 깊은지도 모른다.

가을이 깊어지고 교정에 늘어난 아름다운 은행나무에서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 떨어져 쌓이면 동네아낙네들이 은행나무 열매를 줍고 하던 그 시절 東京에 도착한지 꼭 두달만에 혹독한 감기로 고생을 하면서도 무겁게만 느껴지는 가방을 들고 다녀야 했던 시간들을 보내며 1974년 3월 이제 학문연구의 첫관문이라 할 수 있는 대학원 석사과정시험에 합격했던 기쁨의 순간을 나는 영원

히 잊을 수 없다. 아, 나에게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시절 어느 나라, 어느 대학에서나 마찬가지로 대학의 초창기 학과가 겪는 여러가지 불리한 여건속에서 지내는 터라 학부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 아침에 가장 먼저 연구실에 도착하고 밤에는 제일 늦게 자리를 뜨는 괴로운 몸부림을 치다보니 조급색 학문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눈동자 감아지 정도가 되어 석사과정을 마치고, 계속해서 박사과정을 마쳐 박사학위(1979년 3월)까지 받는 열매를 안게 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당시 東京大學에는 세계각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대학과 다양한 분야 출신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서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여기서 뒤지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는 건강이 제일이었으며, 다음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일일인제 어디서나 필요했다. 특히 적극적인 思考(positive thinking)에 의한 마음가짐은 자연히 성격을 밝게하고 짜증을 적게 내게 만드니, 때로는 귀찮게 굴고 치근덕거리던 차가운 일본인들로부터도 자연히 평가를 받게 되었고, 한국으로부터 유학생 지원이 있을 경우 다른 분야의 교수들한테도 불려가 나의 견해를 반영되어 유학이 결정되어 가는 호환한 광경을 몇번 경험하고 나니 인간으로서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조금씩 성장하는 것같은 기쁨을 맛보기도 하였다.

나의 전공분야가 해양생태학이니 드넓은 바다가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작은 배에서부터

크게는 세계적인 연구선에 승선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을 횡단 또는 중남하드로써 세계 여러곳을 돌아다니며 전문을 넓히고 또한 각국의 연구자들과도 인연을 맺을 수 있었음은 먼 훗날 큰 자산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한 과정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뒤따라 때로는 생사를 걸어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은, 이 글을 쓰게 되니 불현듯 되살아 나고 이제 지나고 보니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나의 일본유학시절중 가장 가슴아팠던 일은 박사과정 2학년 가을, 여기 대학의 사정으로 여지(??) 귀국을 당해야 하는 일이었다. 기본적인 공부의 마음을 앞에 두고 또한 나의 처자식을 동경에 둔채 서울 김포공항에서 여권을 반납해야 했던 쓰라린 경험, 그래서 한학기 강의를 마치고 다시 도일하기는 했었으나 몇개월의 연구공백은 나의 뒤뚱수를 한탄 호되게 내려치는 격이 되었다. 그러나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은 고난의 결집을 깨는 아픔의 과정이기에 어찌 여기서 멈추리. 불타오르는 집념은 연달연의 휴일도 잊어버리게 만들었고 그 결과 동경에서의 학업을 정리하게 되었으니, 한달만에 역사적으로 끝이 깊은 감정과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에 서로간에 불편한 점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성실성과 정확성, 그리고 지속성과 조직성 및 계획정신에 높은 점수를 매기며 깊고도 깊은 일본생활에 종지부(1979년 3월)를 찍었던 게 잊고선 같은데 벌써 13년이만 세월이 흐르고 있다.

그후 나는 1984년 한국과학재단의 博士後過程(Post-DoC)으로 영국의 해양연구소에서 1年間 지내며 그들의 학문적 업적과 태도에, 또한 철저한 개인주의적이고 가정주의적이면서도 매사가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접목되어 있는 그들과 어울려 그들의 소박한 생활과 조남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으며 나의 두번째 장기유학 생활은 런던의 히스로공항을 출발하면서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총동창회장과 함께

장학재원 확충해 수혜인원 늘려 나갈터



양 성 후 총동창회장

그 대학의 발전상 또는 발전 가능성을 진단해 보려면 그 학교 출신 동문들의 사회 각 분야에서의 활동상과, 동문들 간의 결속력,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지원 등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제주대학교의 발전상, 발전가능성을 알아 보기 위해 현재 총동창회장으로 있는 양성후회장(새기전설 회장, 법학과 5회 졸업)을 만나 총동창회와 학교 발전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았다.

△먼저 총동창회가 지금까지 벌여온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동창회는 지난 1954년 8월에 창립하여 숱한 역사적 격랑의 세월 속에서도 모교의 발전과 더불어 꾸준히 내실을 다지며 성장을 거듭해, 어느덧 불혹을 바라보는 연륜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대동문의 수도 2만을 헤아리게 됐으니 동창회의 규모도 커지면서 사업들도 좀 더 체계적이면서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창회에서는 그동안 동문간의 결속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벌여왔는데, 몇가지 간추려 설명하면, 장학재단 설립 운영, 동창회 기금 조성, 동문의 밤 행사, 동창명상 발간, 동창회지인 『백록담』발간, 동창회발간, 각종 학생 행사의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간의 각종 사업 중에서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관심이 더 클텐데, 장학재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창회는 ‘모교재학에 대한 장학 사업’을 벌인다는 동창회의 규정에 따라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의 추진을 역점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67년 제7기 총동창회장단을 중심으로 전도적인 모금운동을 전개, 69년 3월에 장학금

지급규정을 확정하여 1차로 지급한 이래 꾸준히 장학기금 모금과 함께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984년 『재대동창명상』을 만들 때부터 동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 1989년 5월에 1억 4백여만원의 기금으로 법원에 등록한 총동창회 장학재단이 탄생하였습니다. 장학재단의 설립 이래 1990학년도 2학기부터 각 단과대학별로 선정된 8명에 대하여 1인에 120만원씩 매년 960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장학재단의 재원이 더욱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혜금액이나 수혜인원도 점차 늘어 나야 할 계획입니다.

△후배 학생들에게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대졸자들의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모교졸업생들이 원활하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동창회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기업은 물론이요 본도에 있는 대기업이나 공사의 지점과 각종 도내기업에 협조를 의뢰해, 농업과 제주은행 등에서는 모교출신자들을 일정비율 우선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도 모교졸업생들의 취업문제에 저희 동창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모교 모교출세인 ‘아라촉전’과 제천등 각종 행사에 다각적으로 참여 격려하고 있으며, 총동창회 간부등 재학생과의 만남의 시간도 자주 가져 후배들의 애로사항들을 듣고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한편, 학생들이 산업시설 행사를 가질 때에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후배들이 면학에 정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모교 중앙도서관에 ‘동문문고’를 설치해 그동안 많은 장서를 꾸준히 기증해 왔습니다.

△총동창회 각처에 지회 또는 분회 동창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등 육지부의 동문들도 각기 동창회 지회를 결성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서귀포에 동창회가 결성돼 나름대로 동문들 간의 결속을 다지면서 모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조직이 더욱 확대되어 나아가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교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교 당시 법학, 상학, 국문, 영문등 4개학과로서 출발했는데, 그동안 날로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해 이제는 8개 단과대학, 54개학과, 4개 대학원을 거느린 학교로 발전했습니다. 모두가 교수 학생들 물론이요 선배 동문들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 봅니다. 동문이 모두 2만여명, 재학생 수가 7천5백여명, 교직원 9백여명이 되는 데, 이를 제대 전 가족들이 지역 및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나감으로써 이제 완전한 종합대로서의 면모를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교가 지금까지의 비약적인 발전을 토대로 차근차근 내실을 다져나간다면 머지 않아 세계의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여러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의 유학생 생활-미국

일류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는 생각지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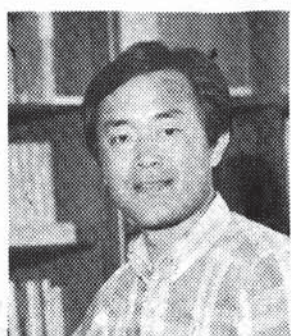
나의 고교 3학년 2학기에 진학할 대학을 결정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 고교 3학년들도 나의 경우와 비슷한 것이라는 생각에 좁게는 우리 모두 제주인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대학진학에 관계없이 신 제주인 모든 분들에게 맞마디 되고 싶습니다.

우선 간단히 저의 소개를 드린다면 저는 제주에서 태어나서 제주에서 자랐으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주에서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주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입학하여 1980년도에 졸업하였습니다. 그 후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1948년도에 미국 오를라호마주(State of Oklahoma) 노먼시(Norman City)에 있는 오를라호마 대학교(University of Oklahoma)대학원 수학과

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했고 1988년 8월 1일에 그 대학에서 이학박사(P.H.D.)학위를 받고, 즉시 귀국하여 제주대학교에 교수로 다시 봉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많은 한국 유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학생들이 졸업한 한국내의 대학들의 분포를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서부터 지방에 있는 대학들까지 매우 다양하게 퍼져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저의 기쁨은,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 한국에서 제주대학을 졸업하는 다른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간에는 아무런 비중을 두지 않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면 동등하게 대접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제주대학에서 취득한 A학점과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A학점은 동

등한 A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들은 A학점으로 인정을 받았으니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유학공부를 시작합니다. 1년후 늦으면 2년후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부류와 옳지 못했다는 부류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월터 켈리(Walter Kelley)교수의 견해를 보면, 각국의 유학생들 중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판단이 옳았다는 부류는 대부분 대학과정에서 충실히 기본적인 전공지식을 습득했고, 옳지 못했다는 부류는 대부분 기초적인 대학과정 지식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집적으로 부족한 경우라고 유학생들을 관찰해 온 경험에서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각 개



고 봉 수
(수학교육과 조교수)

인의 미국 유학생들이 성공과 실패가 자신들의 눈 앞에 아홉거리기 시작합니다. 통계적으로 산출된 결과로서 100명의 유학생들 중에 약 20명 정도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나머지는 실패한다고 합니다. 미국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은 각 학생의 학문적 성취능력을 요구하고 있었습니 다.

대학과정의 전공지식은 대부분의 학문에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며 어느 대학을 입학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은 비슷하고 저의 주장합니다. 다만 학생 개인이 어느 정도 그 지식을 자신의 지식으로 바꾸었는가 하는 게 중요

한 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개인의 연구능력에 따라 학위가 빨리 또는 늦게, 아니면 수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제주대학 출신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각국의 유학생들과 비교해 볼때 모두가 짧은 기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한국에 있는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비추어 본다면 제주대학교에서 전수되는 대학과정 전공지식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전공지식은 여러분들이 입학할 대학에서 배양되는데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던 저의 고교 학창시절을 생각할 때, 어느 대학에서도 대학과정에서 요구되는 전공지식은 충분히 학생들에게 전학 시킬 수 있다고 확언하며, 매우 중요한 사실은 개인의 학문적 발전은 대학생활에서 개인이 스스로 이루는 것이며, 학교시설과 지식을 전수하는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개인적 발전과정에서 보조역할에 불과합니다.

저의 제주대학 4년 생활에서 “하렘원”다는 말만 믿고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의 연구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제주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의 친절하고 열의 있는 강의와 전공지식에서 저의 의문점을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대답해 주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저의 유학생활에서 제주대학에서 배운 저의 학문적 지식이 부족했었다고 느껴본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서 다른 대학과 비교할 때 무척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 다.

끝으로 제주인으로서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 계신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에는 50여개 주(State)들이 있고, 각 주에는 좋은 대학이 평균적으로 2개씩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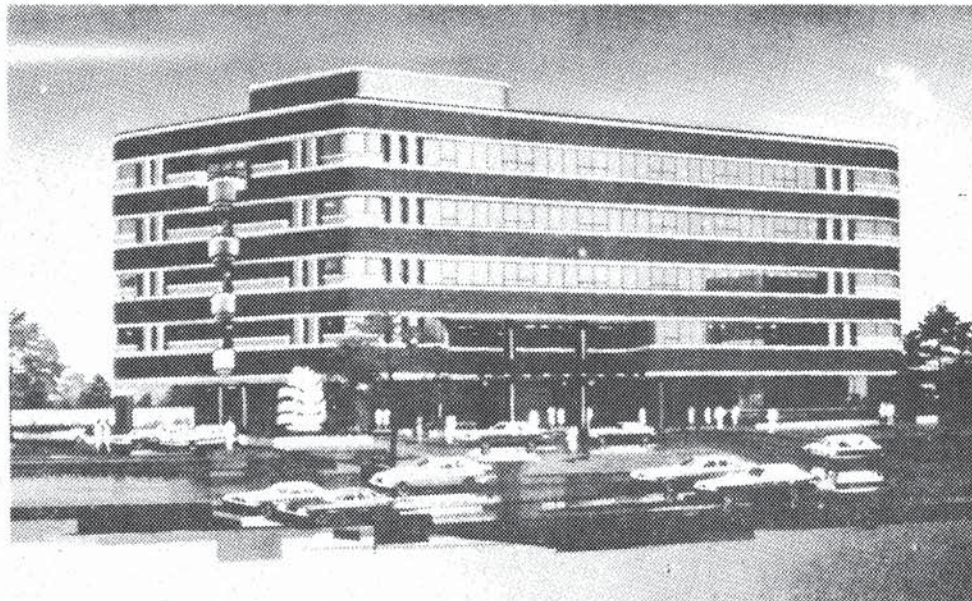
미국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있는 주를 매우 사랑하며, 특히 자신들의 ‘주’를 대표하는 그 주의 대학들을 훌륭한 대학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인도 제주도를 사랑하고, 제주인 스스

로 제주도의 모든 것을 발전시키 나가기야 합니다. 제주대학은 우리 제주인의 대학입니다. 제주대학이 훌륭한 대학이라는 평을 듣게 되면 이것은 우리 제주도의 커다란 발전이며, 우리 제주인의 기쁨입니다. 제주대학을 훌륭한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주인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제주도를 발전시키고, 그러기 위하여는 제주대학을 발전시키는 일에 저는 고교 3학년 여러분들이 제주인의 대학, 제주대학에 입학하는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고교생들은 일류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자신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입학하는 그 자체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의 성공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종속된다고 믿고 생활하고 있었습니 다.

여러분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종합건설은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제주개발을 선도하는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주)우주종합건설사(웅담1동소재)



株式會社 宇洲綜合建設

會長 國會議員 高世鎭

代表理事 李泰錫

제주시 일도2동 369-10
제주우체국사서함69호 FAX. 53-9770
☎ 사장실 53-9116 사무실 53-9111~5
서울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8-5
(대준빌딩 1002호)
☎ 556-1832 FAX. 552-2980

학과선택을 위한 길잡이 (1)

단대별 학과소개

조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양성의 산실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본대학교 개교시부터 설치되어 중추학과로서 많은 인재를 배출했던 본학과는 1974년도에 국어교육과로 개편되었다가 1980년도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본도는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특수여건으로 방언, 민요, 설화 및 각종민속자료 등 수많은 학술적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국어국문학과는 이 학술자원을 발굴,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학과 초창기부터 학술조사를 비롯한 연구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문학 창작활동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다.

특히 구비문학과 민속학 계통에는 본교 졸업생들이 중앙 학계에 두드러진 학문적 업적을 쌓고 있으며 본 학과 출신중에 많은 문인이 배출되어 한국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본 학과는 제주도의 학술, 문예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본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교직에 뜻을 둔 자를 위하여 교직과정을 설치,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중등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고 교직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교직과정을 이수한 본학과 출신들은 본교 교육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본 학과는 부지런히 공부하면 자기 세계가 구축될 수 있는 학문적 바탕과 취업에 배려를 하고 있으며, 여러 여건으로 보아 그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는 1952년 제주대학교 개교할 당시부터 설치되어 그간 국가와 지역사회에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70년에 이르러 전국적인 영어교사 수급을 위해 영어교육과로

개편된 바 있으나 1979년도에 이르러 국력의 신장과 함께 세계화의 한국으로 발돋움함에 따라 영어영문학과 연구와 영어 문운 인력의 필요성도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여 영어영문학과가 다시 부활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어학과 영문학의 심오한 학문연구를 통하여 한국 영어영문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건전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 배출하는 데 전진하고 있다.

특히 본 학과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최우수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영어영문학의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학생들의 실용적인 영어 문운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바, 특별히 전임 미국인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현재 영어영문학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93년도 개편예정인 외국어 교육과는 최선의 기자재로 이휘진 어학실습실 및 동시통역실을 갖추게 됨에 따라 명실공히 이 지역 영어학의 총본산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21세기의 환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 추진되고 있는 개방화, 국제화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어독문학과

외국어 문학과로서의 본 학과는 한국인이 세계문화, 특히 유럽문화에 접근하는 통로이고 한국 문화와 볼 때 유럽문화와의 교량적 역할을 한다고 볼 때, 본 학과에서 배출된 인재들에게서 그러한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언어속에서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계관, 고유한 생활감정이 침전되어 있다는 언어관에 비추어 볼 때 독일어 문화속에서 불란서 정신과 더불어 유럽 정신사의 흐름을 형성해 온 두 개의 커다란 정신의 하나인 독일정신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정신의 표현인 독일어 문학에 대한 연구와 수용을 통해서 독일정신, 학문연구 방법론, 학문

의 성과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사고능력과 정신 공간을 확대시키고 한국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한 토양으로서의 자원을 확대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일반적 목적들을 전제로 가지면서 독어독문학과는 독일에 문예학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닦게 하고 계속해서 독자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

어문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인문과학자로서의 소양과 능력을 지니게 됨은 사회 각 분야의 인문주의적인 정신능력이 요구되는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 어문학에 대한 탐구와 연구는 궁극적으로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탐구이므로 그 결과가 사회문화에 응용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풍부하다 하겠고, 어문학 전공 출신자들의 사회 제반분야에서의 활동과 그의 영향력 또한 크다 하겠다.

일어일문학과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 여건과 역사적 사정 때문에 같은 동양문화권에 속하여서 그 관계는 밀접하다. 더욱이 근래에 이르러 양국은 경제, 학술, 문화의 영역은 물론 다방면에 걸쳐 서로의 협력증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 협력 증진이 보다 깊고 넓은 이해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소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의 국익보장을 위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할 필수요건은 일본어를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실용화하여 그들을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16만명이 넘는 제주출신 재일교포가 일본각지에 살고 있고 또한 우리 제주도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풍부한 역사적, 여건으로 근래에 국제적 관광지로 각광을 받기에 이르러 외래 관광객의 주목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관광객이 날로 급증해 가고 있다.

본 학과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77년 2월에 일본어학과로 설치되었다가, 1984년 3월부터 일어일문학과로 명칭이 바뀌어졌다.

본 일어일문학과는 일본문화를 이해하고 실용적 일본어를 학습하여 장차 직업외교관, 민간회사의 중견사원, 일본을 상대로 한 상업인, 통역관 및 일본어교사, 그리고 일본학을 통해 학문적으로나 문화인이 되는 길을 모색하는 등 다방면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중어중문학과(신설)

태평양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

로 볼 때 비록 만시지탄이라 하겠으나 본 학과의 신설은 시기적절한 패사라 느껴진다. 한자문화권의 우리들의 중국어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되어 왔었기에 그 필요성은 항상 느껴왔었다. 이에 중국어 언어 문학등의 학습을 통해서 유능한 인적 자원을 양성 배출하여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선행적 역할을 함에 목적이 있다.

교과과정에 의해서 중국어를 기초로부터 고급으로, 고문에서 현대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가르치며 아울러 역사, 예술, 지

또한 오늘의 세대는 심오한 역사적 통찰력과 체계적인 역사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앞으로 더욱 더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사를 비롯한 동양사, 서양사의 제반 주요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함으로써 폭넓은 역사적 안목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학과에서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전반에 걸쳐서 각 시대사의 심층적 이해 증진과 각 분야사의 특성과 본질에 대한 구조적 파악, 그리고 사료의 해독능

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교수진은 사회화 전공자 6명과 인류학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명의 교수는 각각 연세대학교, 호주 퀸즈랜드 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머지 4명의 교수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등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음악 학과

1981년도에 사범대학 음악교육



리, 문화등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배워서 광범위한 지식을 쌓게 된다. 지역특성상 실제 생활에 유익한 실용중국어를 치중하게도 된다.

졸업후의 진로는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계, 교육계, 그리고 해외로 진출이 가능하다. 동양의 화외로 진출하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은 통역사, 관광업계도 가능하다. 한자 제주도의 지정학적 특수 위상이나 또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따라 그 선택의 폭이 더 커질 수 있겠고 西洋에 가서 살지 않는 한 동양문화의 진수를 습득하였기에 지식인으로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데 아무런 손색이 없을 것이다.

사 학 과

1981년도에 설치된 사학과는 한국 전통문화의 재인식과 동·서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현대 역사학이 이룩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역사적 지식을 넓히고 있다. 그리고 우리민족의 역사적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과 역사적 판단력을 소유케 하며 합리적인 역사 연구 방법론과 실체를 습득함으로써 독자적인 역사연구의 기초를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학문에의 응용 능력을 높이고 있다.

과로 설치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로 4회제 졸업생을 배출해 왔으나 졸업생 수급이 원활치 못하여 87학년도부터는 전문 음악인 양성 및 음악활동의 국제화를 꾀하기 위하여 인문대학 음악학과로 개편하게 되었다.

본 학과의 교육과정은 음악의 전 분야에 걸친 이론 및 실기분야로 나누어 운영되는데, 이론 분야는 태대학 음악학과나 음악대학에서 개설 운영되고 있는 모든 교과목을 설정하였고 특히 실기분야에서는 국악 실기를 제외한 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 등 4개 부문에서 전공실기를 택임하여 이수케 함으로써 전문 음악가 및 연구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공과목 이외에도 본 음악학과 소정의 교직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하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직과정을 개설하여 뜻 있는 학생들은 교육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악 전문 연주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3학년부서는 리시아블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연주능력을 향상시키는 물론 졸업연주회를 의무화하여 많은 무대 경험을 쌓아 연구하는 자세를 배양시키고 있다.

또한 해마다 정기연주회를 마련하여 질적인 연주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술 학과

본 미술학과는 1987년 신설되었으며 당초 입학정원 20명에서 1989년에 증원이 되어 현재 입학정원 40명이다.

우리는 전통적인 미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새로운 창조 능력을 극대화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미술문화를 이루어나야 한다.

예술활동의 근본은 가장 인간적인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고도산업사회의 병폐인 기계화, 획일화의 늪에서 벗어나 인간성을 회복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우선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것이 흐르는 사회건설에 우리 미술인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본 미술학과에서는 미술전반에 관한 새로운 심오한 이론과 보기 방법을 교육하여 창조 능력을 갖춘 전문미술인, 미술교육인을 양성함에 목적을 둔다.

1학년에서는 교양과정, 2학년부터는 한국화, 서양화, 조소전공으로 분류하여 전공교육을 강화한다.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은 취득성적이 전원의 30% 이내에 들어야 교직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게 되며 소정의 과목을 마친 후 중등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졸업 후에는 전문미술인으로 창작에 전념하게 되며 그 외에 각 기업체의 미술분야 업종에 진출할 수도 있으며 미술분야의 지도자, 교육자로서 일을 하게 된다.

법 정 대 학

법학과

법학과는 법학의 기초이론과 실정법의 이론과 실체를 연구하고 교수함으로써 법조계를 비롯하여 학계, 정계, 관계, 금융계 및 산업계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법지식을 널리 보급하여 국민의 건전한 법생활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학과는 법학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삼고 있으나 오늘날 사회의 어떤 분야도 법률과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지 않는 경우는 없으므로 법학을 전공한 인재의 사회적 수요는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점차 증대되고 있다. 법학과 졸업생들은 법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터득한 정의감과 합리적 판단 및 논리정연한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의 어느 분야에 있어서도 지도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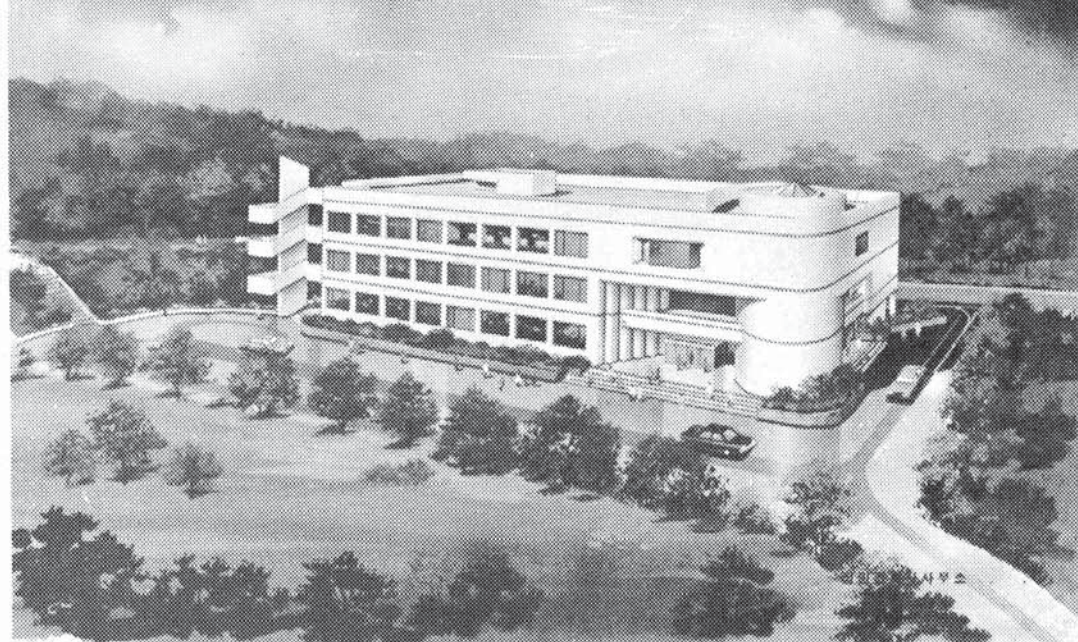
우리 법학과는 1952년 제주대학교 개교 당시에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법학의 학문적 발달에 기여함은 물론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여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의 각계 각층에서 활약하도록 함으로써 그 성과를 드높이고 있으며 계속하여 훌륭한 전통과 역사를 쌓아가고 있다.

행정 학과

본 학과는 1974년 개발행정전 7면에 계속



제주대학교외국어교육관신축공사



※ 외국어교육관 조감도 [건축면적 : 785㎡
연 면 적 : 2,506㎡]

2천년대를 향한
제주대학교의 도약에
저희 삼오종합건설 가족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오종합건설주식회사

☎ 46-0404

학과선택을 위한 길잡이 (2)

6면에서 이어짐

공으로 설치된 이후 1979년부터는 지역개발학과 행정전공으로 개편되고 2부학부를 신설하여 야간행정학과가 개설되었다. 그 후 1981년부터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사회과학대학내에 행정학과로 독립되어 오다가 1988년도부터 사회과학대학이 법정대학과 경상대학으로 분리되면서 현재는 법정대학 행정학과로 개편되었다. 본 학과의 특징을 최근의 연구동향을 기초로 전통적인 행정학 교육과정을 강의하고 있으며 행정학의 성격에 비추어 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관련 사회과학 분야와도 긴밀한 교수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60년대 이후 계속적인 행정기능의 확대 및 행정의 과학화 경향으로 행정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 그 활동분야가 다른 어떤 학문보다 넓어지고 있다.

그동안 본 학과에서는 1978년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주간 446명(남307명 여139명), 야간 343명(남277명 여66명) 등 졸업생을 대부분이 관공, 금융계, 법조계,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학과 동문회를 조직하여 동문간의 친선도모는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경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과는 기업경영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연구하고 교수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경영자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 모든 조직의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경영자로서의 소양과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인사, 판매, 생산, 재무, 회계, 경영정보 분야 등의 이론 및 실무교육과 특히 국제화 시대와 정보사회를 대비하여 어학 및 전산관련 기능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교과문제를 하고 있다.

32년 동안 배출된 경영학과 졸업생들은 우리 사회의 사기업, 공

기업, 학계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 다양하게 진출하였는바, 삼성, 현대, 기아등 대기업 계열사를 뿐만 아니라 한진, 한국통신, 주력공사등의 공사와 력키, 대신, 쌍용, 동서증권등의 증권사를 비롯하여 한국은행을 비롯한 특수은행과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과 방송, 신문, 잡지사 등의 언론기관, 공무원, 관광관련업체, 광고산업 관련분야, 공인회계사, 대학교수와 각종 연구소등의 연구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교직과정 이 개설되어 있어 상업분야의 교직에도 진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영학과 졸업후 사회에 진출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므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체라던 어느 분야든지 진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관광경영학과

범세계적인 '레저 붐'속에 우리 사회에도 깊숙히 침투된 여가선용의 풍조를 올바르게 유도하고 아울러 국가 경영정책상 전략산업의 하나로서 위치를 다진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자를 양성함으로써 국가 인력개발 및 그 수급계획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관광경영학과의 교육목표이다.

1973년 우리나라 국립대학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본 학과는 그간 16회의 졸업생을 배출시켜 각종 관광 관련 산업분야에서 활약케 하는 한민 학문적 기초확립과 발전을 계속해오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치가 가능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아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관광산업의 육성, 관광개발 및 그 진흥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역적 차원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를 관광 담당하게 될 전문요원의 확보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학과에서는 장래 관광요원으로서의 포부를 가진 열재를 모아 관광에 관한 일반이론의 학습, 관광정책의 수립 및 개발방법의 탐구, 관광산업경영의 실무지식 습득 그리고 현장실습이수 및 집중적인 어학교육을 통해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은 관광산업체의 경영자 또는

기간요원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회계학과

회계학은 모든 조직활동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만들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회계인은 모든 조직에서 경제적 정보를 다루는 사회경제적 인 핵심적 위치에 있으며 영예로써 평가된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회계인집단인 경영, 경제 및 법학분야에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회계정보와 아주 밀접한 전산교육도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진출분야는 모든 조직에서 관리자로 기본이 되는 회계 및 회계정보를 다루는 사회경제적 계사·세무사·증권 및 재무분석가·감사인,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감사·세무직 등 아주 다양하며 미래의 직업적 전망은 아주 밝다. 특히 경제선진국에서 회계학과 졸업생의 취업률과 보수수준은 인문사회계통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첨단사회과학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정보사회'로 특징지어지는 미래의 우리사회도 회계인의 수요증대와 사회적 지위의 중요성은 매우 커질 것이다. 본 학과의 교수진은 미·일등 외국에서 강의와 연구경험도 다양하며 경상대 내 고시학과 전산실습의 설치운영으로 회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무역학과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무역 확대를 통해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보아 무역이 국민경제 전반의 건전한 존립과 발전에 대한 중요한 전략적 의미까지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무역활동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 학과는 1980년에 신설되어 그간 상당수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무역에 관련된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는 한편 무

역학의 학문적 기초확립과 발전에 정열을 쏟고 있다. 따라서 본 학과에서는 무역론에 대한 학문적 탐구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세계 수출시장에 대한 연구 및 외국어교육 등 실천적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유능한 무역인으로 국제적 적응력을 지닌 International Businessman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학과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은 이론의 정교함과 논리전개의 일관성으로 "사회과학의 꽃"이라 일컬어 정도를 각광받고 있으며 다른 사회과학분야에 많은 이론과 분석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학의 교육목표는 오늘날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경제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데 있다. 여기서 경제문제라 함은 크게는 경제정책목표인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의 균형, 그리고 소득분배, 작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여러 경제현상을 의미한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본학과에서는 미시·거시경제이론과 이와 관련된 미시·거시·소득분배, 경제사, 경제정책에 관한 이론교육과 현실에의 응용 등 다각적으로 지식을 습득케 한다.

경제학도의 사회적 수요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각 직장에서 기획이나 정책수립 및 평가업무 등 핵심직인 분야에서 경제학의 기초지식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졸업후 정부기관, 금융기관, 공공기업체 및 민간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國語教育科는 1973년 教育學部의 설치에 따라 중전의 國語國文學科가 '國語教育專攻'으로 개편되면서 비롯되어, 1982년 종합대

학교로 승격함에 따라 지금과 같은 國語教育科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1년 현재 3백40여명의 졸업생(14회제)이 배출되어 제주에서는 물론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교사, 교수, 언론인, 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은 정규 교과과정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국어국문학 연구의 초심자로서의 학문적 기반을 충실하게 다지고 있으며,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자체 학회활동을 통하여 국어학, 국문학, 민속학, 창작 등 여러 분야를 심도있게 연구하는 한편,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교수, 학생, 동문들이 함께 現地學術調査(현재 13회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논문과 함께 학회지 "白鹿語文"(현재 8권)으로 묶어내어 전국의 연구기관 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보내고 있는데, 그 권위를 인정받으며 널리 활용되고 있다.

國語教育科에서는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우수한 교사자원을 배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인 연구,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학원 진학, 조기 단과대학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학생들이 국어교사로, 문인으로, 언론인으로 진로선택을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어교육과 졸업생들은 앞으로 좀더 다양한 방향으로 사회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교육과

영어교육과는 1952년 제주대학교 설립시에 영어영문학과로 출발한 후 1970년에 영어교육학과로 개편되었다가 1973년에 교육학부의 설치에 따라 영어교육전공으로 개편되었다. 1982년 제주대학교가 종합대학교로 승격함에 따라 현재 국립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교과과정에 있어서는 영어교육론 뿐만 아니라 대학원 진학 또는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려는 학생들을 위하여 영어회화, 영작문, 영어학, 영문학 계통의 과목을 최대한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에게 보다 새로운 지식의 시대에 걸맞는 학생들의 실용적인 영어사용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본과의 학예행사인 Parnassus 축제에 이 대학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바, 이 행사를 통해 영어연극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창의력은 물론 제주도 영어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더욱이 본과에서 전용시설인 영미문화연구실에 각종 시청각 교재와 도서를 준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로 영미문화를 생생히 익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본과의 졸업생들은 본도는 물론 전국 각처에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학원 진학 뿐만 아니라 신문, 방송 등 여러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사회교육과

본학과는 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지식과 탐구 방법을 종합적으로 습득케 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교육방법의 연구 및 교육기술을 연마케 하여 점차 유능한 일반사회교과 교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1차 제주도종합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두고 있다. 1980년도에 설립된 본학과는 특징은 사회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알찬 교육과정의 이수를 통해 사회교육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 배출함에 있으며,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가치·태도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학과는 점차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리학 일반과 지리학 각 분야를 이수해 함으로써 사회교육의 폭을 넓혀주고 있으며, 사회과학이론과 교육의 문제를 밀접히 관련시켜 날로 복잡해가는 사회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본학과는 1980년에 신설되어 제주도는 물론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될 사회교육교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학생들에게 보다 새로운 지식의 전달과 인격함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유능한 사회교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본 학과에서는 상업계 교과목 전반에 걸친 경제, 경영, 무역, 회계 및 타자와 EDPS 등에 관한 폭넓은 지식향상과 사례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본 학과의 교과과정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을 제학년에서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교과목이 단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졸업후 대학원 진학이나 기업체(금융, 무역, 제조업체 등), 또는 전공과 관련된 연구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상업교육과

본 학과는 1980년에 신설되어 제주도는 물론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될 상업교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학생들에게 보다 새로운 지식의 전달과 인격함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유능한 상업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본 학과에서는 상업계 교과목 전반에 걸친 경제, 경영, 무역, 회계 및 타자와 EDPS 등에 관한 폭넓은 지식향상과 사례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본 학과의 교과과정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을 제학년에서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교과목이 단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졸업후 대학원 진학이나 기업체(금융, 무역, 제조업체 등), 또는 전공과 관련된 연구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그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본 학과에서는 철학, 윤리학, 정치학, 경제학, 한국사상, 사회사상, 북한문제 및 통일문제 등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지식을 습득하고 종합적인 연구를 한다. 뿐만 아니라 종전의 일반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탐구식 가치태도 교육에 역점을 둬서 입선에서의 차원높은 국민윤리 교육을 펴하고 있다.

한편 본 학과는 대학원 진학을 통한 교수, 연구소의 연구원, 각종 기업체의 정신교육 담당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수학교육과

수학은 근본적으로 수, 도형,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모든 학문의 기초이다. 본 학과는 현대수학의 기본인 미적분학, 대수학, 해석학, 위상수학, 기하학, 통계학, 응용수학 및 수학교육 등의 이론을 연구하고 교육시켜 제주는 물론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봉직하게 될 수학교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학과의 교육내용은 이론적인 분야로서 순수수학, 응용 및 실험분야로서 응용수학,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위한 세미나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졸업후의 진로는 중·고등학교 수학교사는 물론 교육대학원 또는 국내의 대학원에 진학, 심오한 학문을 연구하여 수학자로 성장할 수 있으며 또한 전자계산분야, 전략계획 분야, 보험업체, 각종 통계 업무 등 다양한 분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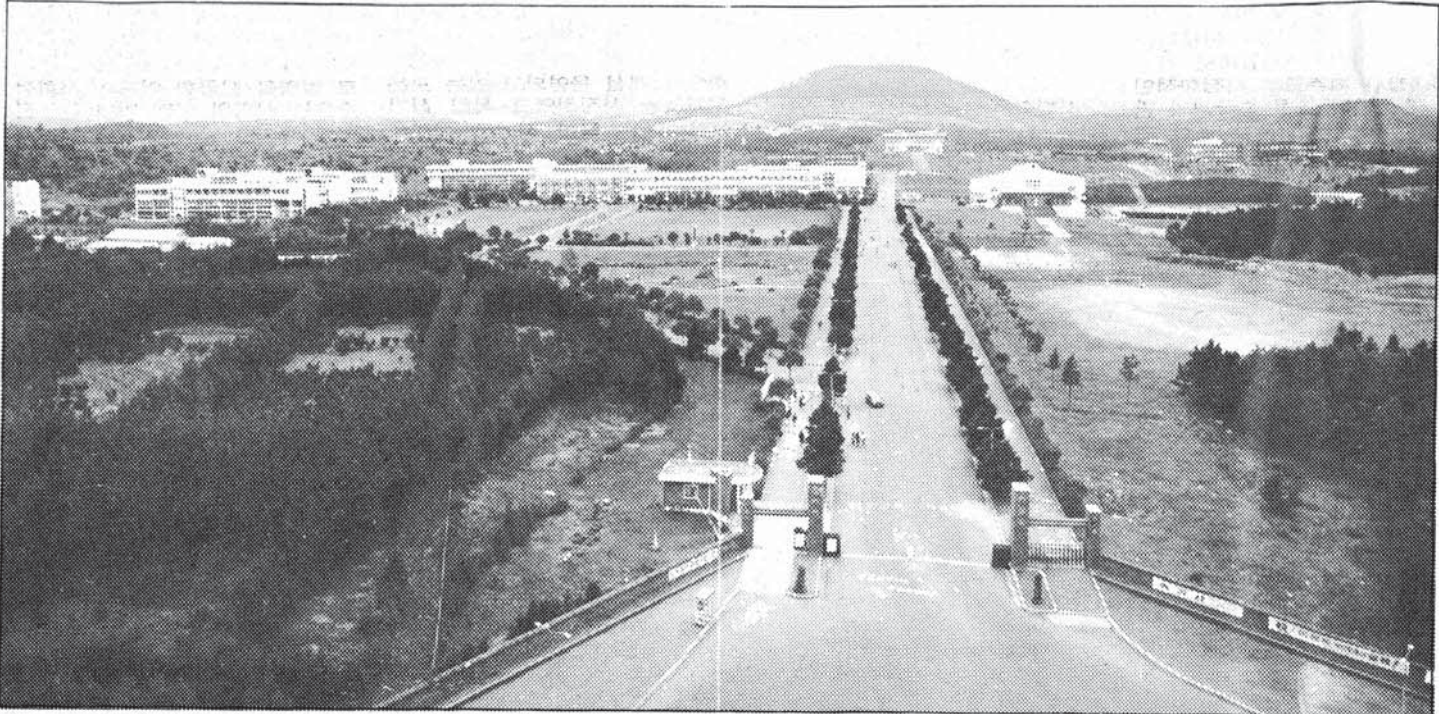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전공)

본 학과의 교육목표는 현시대를 이끌어가는 과학분야의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물리학, 생물학, 화학, 수학, 지구과학 및 과학교육이론 등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교육시켜 다재다능한 물리학자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특히 관찰과 실험을 통한 탐구학습을 시킴으로써 유능한 물리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학과를 졸업과 동시에 도내의 각 중·고등학교 과학교사로 봉직할 수 있으며, 더 깊은 학문의 연구를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

8면에 계속



도내 최초의 정보처리전문교육기관

컴퓨터

- 프로그래밍
- 정보처리기사
- 정보처리기사
- 컴퓨터기사

제104기 개강12월2일(월) 12월학기수강접수중 (공휴일도)

제12차 교육심사기재 컴퓨터 도입

최신 SOFTWARE 1,000여종보유 실습실 공용일도 개방

1991년도 정보처리기사·기능사 시험안내(학번기)

기	시	과목	시	과목	시	과목
1	1	1	1	1	1	1
2	2	2	2	2	2	2
3	3	3	3	3	3	3

●전문전선인 양성교육 ●국가검정대비 !! ●유능한 감사인 !!

●한국과학기술인 협회상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교육정보교원

●제주지역 정보처리기사

●한정자출판사 출판인상

●가사1급 필기대비

●가사2급 필기대비

●가사3급 필기대비

●가사4급 필기대비

●가사5급 필기대비

●가사6급 필기대비

●프로그래밍 정규교육과정

●EDPS개론

●Fortran - I, II, Fortran - II, COBOL - I, COBOL - II, Assembly, O. J. T. 시스템분석 및 설계 실무

●프로그래밍전공교육과정

●G.W. BASIC - I, G.W. BASIC - II, 파스칼, C언어 - I, II

●프로그래밍 특별교육과정

●가사1, 2급 필기·실기대비

●가사3, 4급 필기·실기대비

●전자계산기

●AUTO CAD

●메크로어셈블러

●유닉스(제닉스)/공무처리시스템

●사무자동화(OA) 교육과정

●MS-DOS

●워드프로세서

●로터스 및 심포니

●dBASE

●마이컴(BASIC) 교육과정

●국교(초급, 중급, 고급, 특급)

●고급생반

●중학생반

●키 펀치(엔트리)과정

●한글, 영문, 숫자 키보드반복학습

●최신 워드프로세서 완벽교육

●마이크로 컴퓨터(1인 1대) 시스템 운용교육

컴퓨터교육의 명문

안양컴퓨터학원

위치: 중앙대중 서사리입구건너편 ☎52-1729~30 22-2709 FAX 58-1151

나라출판사

인쇄·출판

“나라기획은

새로움을 창조하는

사람들과의 모임입니다.”

출판·인쇄·광복문화의 새빛

주식회사 나라

대표전화: 53-4635, FAX: 53-6704(삼성우체국 옆)

대입시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무얼 하시겠습니까?

먼저 컴퓨터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글쎄요... 놀러도 다녀야 되고, 당구도 배워야 되고, 독서도 하고, 음, 이왕이면 기타치며 노래도 부를 줄 알면 더욱 좋겠지요.

하지만 컴퓨터만은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대학에서는 더 어려운 학문연구와 지식 경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깐요. 날이 갈수록 힘들어만 가는 경쟁사회에서 컴퓨터는 여러분의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좋은 컴퓨터와 좋은 컴퓨터배출책을 만들어내는

달리만들

종로컴퓨터학원

종로컴퓨터학원, 달리만들 제주대리점 (법원앞 버스정류소 ☎52-9443, 58-1756)

안 줄기로 해냈어요

종지 않고 잤어요, 뭐...

●컴퓨터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학과선택을 위한 길잡이 (4)

8면에서 이어짐

유사학과(환경, 화학공학, 재료, 정밀화학등)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계에 진출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이나 각 기업체의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고, 또 공직자로서 화학직(화학, 화공기사 및 기술사)에 복직할 수 있다. 자격 취득으로는 열관리, 안전관리, 공해관리, 품질관리 및 위험물 취급자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식품영양학과

현대의 식품영양학은 식품과 건강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는 과학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영양학은 건강에 관한 과학의 한 분야를 구성하며,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식품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질병을 예방 혹은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활방식, 특히 식생활의 내용을 바르게 인식하여서 이것과 건강상태를 비교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품영양학의 내용은 (1)식품에 관한 부분 (2)인체의 건강에 관한 부분 (3)건강유지에 관한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다.

본 학과는 이러한 부분의 전문지식을 학생들에게 습득시킴으로써 영양상의 현실문제 즉, 건강장진, 질병치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인 영양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생활의 개선이란 단지 예방의학적인 면에서 영양학의 중요성은 새롭게 인식되고 있어서 영양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은 각종 급식단체의 영양사는 물론 중·고등학교 교사, 지역사회 영양상담원, 농·어촌 지역의 영양지도원 등 여러분야에 진로가 열려 있다.

수학과

20세기에 들어와 순수수학의 학문적 체계가 확립되고 산업의 근대화, 우주산업의 발달등으로 여러 응용분야(통계, 컴퓨터 등)가 생겨났다. 그리고 컴퓨터 과학의 발달로 수학은 정보과학, 암호학, 언어학, 경영학, 사회학, 생명과학 연구에 필수적인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복잡한 사회현상을 명확히 파악하는데 통계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실용적인 응용성 이외에도 수학은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수학의 본질에 대한 연구와 연구방법은 철학, 논리학, 교육학등 여러 인문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러 학문의 추세와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과학기술의 발달과 건설한 인문과학의 발전이 질실히 요구됨에 따라 많은 능력있는 수학인구가 필요하다. 실제 학교, 기업체, 은행, 보험회사, 연구소, 행정기관, 호텔등에서 수학전공자를 모집하려는 요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

따라서 수학과 교육목표를 ①여러가지 실제 문제에 수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는 능력배양 ②수학의 기본개념의 이해 ③수학과 다른 학문과의 관련성 이해 ④현대사회의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적응능력의 계발에 두고 있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대적, 사회적 요청, 학과의 방향, 학생의 진로방향과 능력에 따라 세분화(수학과목+전산과목+통계과목)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컴퓨터 실습 및 통계분석실습을 갖추어 통계자료 처리 능력 함양, 전산교육의 강화, 수학과 전산학과의 관련성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결과로 반이상의 졸업생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산관련 업체에 취업하고 있다.

가정관리학과

본 학과는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발전에 부응한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가정생활의 질향상 내지 사회 생활의 질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학과의 교육목표는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가정을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생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인을 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학과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정자원관리 및 선택, 소비문제, 아동발달 및 아동심리, 가족관계, 가족상담 및 치료, 주택설계 및 주택설비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본 학과의 졸업 후의 진로는 교사, 생활지도사, 품질관리사, 판매사, 공무원, 생활개선요원, 가정생활상담원, 인테리어 디자이너, 공동주택관리사, 주생활개선요원, 각 연구소 연구원, 일반기업의 연구원 및 사무원, 컴퓨터 관련분야 등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체육학과

본 학과의 교육과정은 체육발전에 걸친 이론분야 및 실기분야로 양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학생들의 특기특목에 따른 부서의 특별활동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종목에 따라 실시하는 한편,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본 학과에서는 위와같은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종합캠퍼스내에 체육관, 대운동장, 보조경기장, 테니스장(8면), 사격장, 무용실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체육관내에서는 각종실내경기를 행할 수 있도록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일반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인 샤워시설을 지하에 갖추고 있는 한편, 앞으로 각종 연구실을 완비할 예정이다.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는 성적이 우수하고 체격·체력 및 운동소질이 다양한 학생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특기자중 본교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선수를 선발하며, 성적이 우수하거나 체육특기자에게는 장학금 지급의 특례를 주고 있다. 본 학과의 입학정원 30%에 해당하는 성적우수자는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재학중 R.O.T.C 이수자는 장교로 군복무에 임하게 되어 복무후에는 교련교사로 임용될 수도 있는 혜택이 있다. 또한, 2, 3급생활체육지도자

연수를 받음으로써 각종 사회단체 및 직장체육지도자로 진출할 수도 있으며 대학원 진학이나 졸업후의 진로문제에 대하여도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공과대학

식품공학과

식품공업은 현대산업사회에서 인구증가,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유망한 공업분야이다. 따라서 본 학과에서는 농·수산업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원료의 생산, 유통 및 식품으로의 가공과 보존, 품질관리에 필요한 ①기초과학(생화학, 미생물학, 분석, 물리, 유기화학)과 ②응용과학(식품화학, 영양화학, 공업미생물학, 식품분류, 식품가공)을 토대로 고도의 현대과학을 이용하여 그 질과 기호도의 향상에 관여하는 물론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에 부합되도록 ③가공의 공학원리(화학공학, 식품공학, 냉동공학, 화학양론, 기기분석, 실험공학 및 전산학)는 물론 ④정단과학분야(생물공학, 효소공학, 발효공학, 식품물성학, 생물반응공학)를 연구, 교수하여 현대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기술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 자체 확보면에서는 학과 개설된지 24년의 전통으로 타학과보다 양호하게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며 우수한 공학자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 석·박사과정도 개설되어 심오한 학문연구에 정진할 수가 있다. 현재 대학원과정에서는 박사과정 7명과 석사과정 8명이 학문연구에 정진하고 있다. 또한 학부과정에서 소정의 시험을 거쳐 식품제조, 수산제조, 환경기사(수질대기)1급과 2급 및 품질관리기사, 식품위생감시원 및 식품위생관리원의 자격도 취득할 수 있으며 그동안 배출된 5백여명의 학부 졸업생들은 도내·외의 식품업계는 물론 관련 연구기관, 학계, 행정계, 언론계는 물론 일반기업체 등 여러 분야에 진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기관공학과

현재의 미래 산업으로서의 해양개발, 항공우주, 에너지 개발 분야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산업 분야의 모체는 동력기계계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장래 많은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본 학과에서는 동력기계 설계 제작을 위주로한 기계설계, 유체역학, 유체기계, 기계설계, 기계공학, 전기공학 및 전자공학 등을 위시하여 내연기관, 외연기관, 조선공학, 기구학, 냉동 및 공기조화, 자동차, 기계설계, 기계공학, 유체기계, 가스터빈, 전열공학, 연소공학 등을 비롯하여 각종 실험실습 및 기관 승선실습 등이 있고, 대학원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통신공학과

현대통신 방식은 유선·무선통신이 상호 의존 내지 복합의 입체적 개념을 가지며 더욱이 정보처리를 포함한 DATA통신이 도입되어 날로 새로운 차원의 개념으로 개선·발전되어 가고 있다.

본 학과에서는 이러한 시대성을 충분히 반영시킨 전문적인 기초 지식과 기술을 연구·교수하여 졸업후에는 각종 통신 system의 설계, 제작, 운용, 보수, 유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그 원리를 익히고 이론과 기술이 일체임을 체득하는 방향으로 실험실습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국가 기술자격법 및 전과제도에 의하여 본 학과 학생은 졸업전에 무선설비기사 또는 유선설비기사의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졸업후에는 각 분야의 고급 인력 관리자, 기술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진출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유선통신을 포함한 각종 무선통신 system의 설계, 보수, 유지 분야 ②전자교환 방식을 포함한 유선통신 system의 설계, 보수, 유지 분야 ③전자통신공업 분야인 통신기기 및 그 부품의 생산 분야 ④On-line system을 비롯하여 각종 정보처리를 필요로 하는 DATA통신 분야.

상기 외에도 통신분야는 방송국, 육상·해상 및 항공 등 진출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그 수요는 날로 증가되어 가고있다.

에너지공학과

인간의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발달에 따라 급격히 수요가 증대하는 반면 지구촌의 유한한 에너지자원은 머지 않아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자원을 탐구하고 기존 에너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법제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에너지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생산 기술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공학은 기초과학의 기반 위에 공학의 여러분야의 유기적으로 복합된 새로운 응용학문으로 본 학과는 에너지자원의 탐구, 에너지 생산,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할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본 학과에서 교육하는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주축을 이루는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과 관련된 에너지전달이론, 원자로이론, 플랜트시스템공학, 열수력학, 특수 에너지원인 방사선과 Laser의 이용기술, 대체 에너지원인 풍력, 태양열, 핵융합

에너지의 원리, 에너지이용과 관련된 폐기물처리, 환경공학, 방사선안전, 열관리기술, 플랜트안전공학 등이다. 졸업후 진로는 각자의 희망과 노력에 따라 원자력 연구소와 발전소, 플랜트 기지조업체, 비파괴검사 업체, 열관리 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다.

정보공학과

본 학과는 사회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가공하여 정보를 창출해 내는 정보공학에 관한 기술의 개발과 응용에 대하여 연구 교수하며, 정보화사회의 주도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1985년에 설치되었다.

본 학과의 교과과정은 타 대학의 전자계산학과 유사한 체계로 되어있으며 앞으로의 정보화사회의 주축이 되는 Computer기술을 이용하여 정보처리능력을 배양하여 과학발전에 따른 사회의 발전추세에 발맞추어 나가고자 한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자료의 홍수 속에서 적절한 정보의 창출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치 않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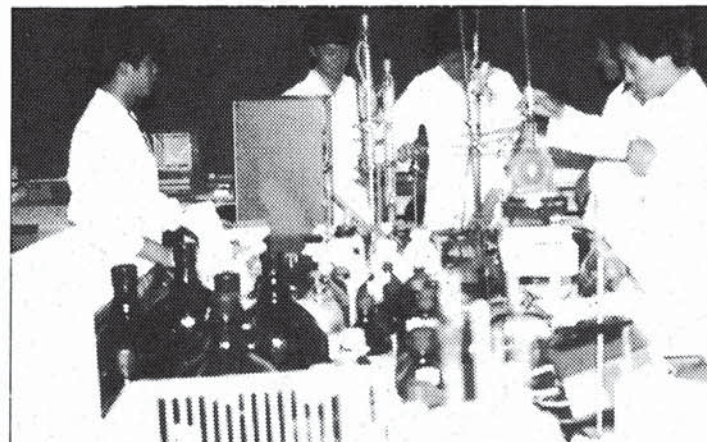
누구나 컴퓨터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실제 컴퓨터를 응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특히 정보공학과 관련된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것은 이 분야에 종사할 인원의 부족으로 대표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정보화에 필요한 인원은 증가되어야만 한다. 현재도 이러한 사회적 측면에 부응하여, 각종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초로 하고,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들을 교수하므로, 배출되는 인재들이 쉽게 능력 발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전자공학과

1986년 신설된 본 학과는 2000년대를 향하는 정보화 사회와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가 될 우수한 기술인력 및 연구원을 배출하여, 산업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공학도의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

본 학과의 교과과정은 수학 및 물리학과 같은 기초과학과 전자회로, 회로이론, 물리전자, 전자재료, 반도체공학, 집적회로 설계, 통신공학, 로보틱스공학, 컴퓨터공학, 제어공학 및 디지털공학 등이 있으며, 이론과 실험을 통하여 현대산업사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공학의 제반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운영, 편성하고 있다.

본 학과의 졸업후의 진로는 첨단과학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분야와 고도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추구하는 현대산업의 필수요소인 계속제어 분야를 비롯하여 가정용 전자기기, 통신기기, 의료장비,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등 모든 전자응용 분야의 전자기기를 생산 운용하는 기업체에 진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좀더 깊이있는 학문에 전념할 수 있고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 등에 종사할 수 있다. 또한 본 학과의 진로는 무한히 넓게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전망이 대단히



보다.

전기공학과

현재 우리 인류사회 고도 공업사회로부터 정보 산업사회로 진화하고 있고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전기공학이다.

전기공학은 다른 분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전문성이 심화되고 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며 다음과 같이 5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전력공학 ②전기통신공학 ③전자공학 ④전자계산공학 ⑤제어공학 이 분야중 전기공학과에서는 전기 에너지의 변환 이론을

주축으로 해서 전기에너지의 발생, 변환, 전송, 이용에 관련된 전력공학을 위시하여 system의 대량화, 정밀화에 따라 이의 능률적,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제어공학을 연구·교수하여 이 분야의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교과과정의 주요 분야는 기초전기공학, 에너지 변환공학, 전력전송공학, 변환기기, 전력전자기기, 전기응용, 전기재료, 제어공학 및 보조분야로서 통신공학, 전자공학, 전자계산공학 등이 있으며 이론과 실험을 통하여 전기공학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졸업 후 대학원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소, 행정분야, 기간산업체, 각종 공업분야, 일반 생산업체, 전기전자기기 생산업체, 건설업체 및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은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인류의 생존과 생활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본 학과에서는 원료로부터 실생활에 유용한 화학제품을 생

산하는 과정인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변화 과정을 통하여 원료 물질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과 공학적 원리를 연구·교수하며, 또한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정보화에 필요한 인원은 증가되어야만 한다. 현재도 이러한 사회적 측면에 부응하여, 각종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초로 하고,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들을 교수하므로, 배출되는 인재들이 쉽게 능력 발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광범위한 기초지식을 보유하고 공정 해석 및 개발에 탁월한 재능을 갖추게 되어 석유화학공업, 비료공업, 섬유화학공업, 고분자공업, 엔지니어링회사, 신소재개발, 정밀화학제품, 농약, 제약, 식품, 화장품, 페인트회사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보다 깊은 학문을 연구할 수도 있어 매우 전망이 밝다.

산업디자인학과

현대는 산업의 고도성장과 함께 우수한 산업디자인 제품의 선전 및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DESIGN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천혜의 관광도시로 관광상품의 디자인 및 포장 디자인 및 실내장식, 그 외에도 각종 산업의 발달로 요구되고 있는 제품디자인 등 다방면에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요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학과에서는 이에 부응하고 공예품의 제작기술 및 각종 상품의 선전과 광고, 제품디자인 교육을 받은 전문 디자이너를 배출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역사의 주체로 서자

누구나 '대학발전기금조성'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100원 밖에 없는데...”

“승차권도 받아줄까?”

“야! 너 미쳤니? 현금하게!”

“우리가 왜 대학발전기금을 내야 돼!”

한 번쯤 상상해 볼 수 있는 광경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관객일 수만은 없습니다.



<별표#1>

고사시간표 및 계열별 고사과목

교 사	인 문 계				자 연 계				예 체 능 계									
	고사과목	배점	문항수	시간	고사과목	배점	문항수	시간	고사과목	배점	문항수	시간						
1 08:40~10:10 (90분)	국어 I (한문 I 포함)	39	39	90	인문계와 동일			90	인문계와 동일			90						
	국 사	16	7															
	주관식	19	19															
	주관식	6	3															
2 10:40~12:30 (인문, 자연:110분)	수학 I·II -1	38	19	110	수학 I·II -2	52	26	110	수학 I·II -1	38	19	90						
	사회 I·II	17	5			23	7			17	5							
	지리 I·II	28	28			14	14			14	14							
	세계사	12	6			6	3			6	3							
3 10:40~12:10 (예·체능:90분)	주관식	66	47	110	소 계	66	40	110	소 계	52	33	90						
	소 계	29	11			29	10			23	8							
	4 13:30~15:00 (90분)	영어	42			42	90			인문계와 동일				90	인문계와 동일			90
		영어(독제와 외국어-시업용 택1)	18			8												
주관식		14	14															
주관식		6	3															
5 15:30~17:10 (100분)	주관식	56	56	90	소 계	56	56	90	소 계	56	56	90						
	소 계	24	11			24	11			24	11							
	6 13:30~15:00 (90분)	국어 II	14			14	100			국민윤리	19		19	100	음악·미술·체육 중 택1	28	14	100
		국민윤리	6			3					6		3			12	6	
물리 I, 화학 I, 생명 I, 지리 I, 중 택 1		14	14	28	28	14		14										
주관식		6	3	12	6	6		3										
7 15:30~17:10 (100분)	주관식	47	47	100	소 계	47	47	100	소 계	61	47	100						
	소 계	18	9			18	9			24	10							
	8 13:30~15:00 (90분)	체 령 장	20				90			체 령 장	20			90	체 령 장	20		90
		총 계	340			201					340		201			340	194	
총소요시간		390분	총소요시간	390분	총소요시간	390분		총소요시간	370분									

92 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

54개 학과에 1천9백20명 모집

지난 10월28일 확정·발표된 '92학년도 우리학교 신입생모집 요강에 의하면 올해는 54개학과 1천9백2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는 인문대학에 30명, 자연과학대학에 30명, 공과대학에 30명, 경영대학에 30명, 법학대학에 30명, 의과대학에 30명, 치과대학에 30명, 약학대학에 30명, 간호대학에 30명, 교육대학에 30명, 사회복지대학에 30명, 환경대학에 30명, 디자인대학에 30명, 총 54개학과에 1천9백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신입생모집 요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방법에 있어서 복수지원 및 인문·자연·예체능 계열간 교차지원할 수 없고, 각 계열에서 동일계열의 학과만 제2지망까지 할 수 있다. 사범대학 각 학과를 1지망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범대학 및 타대학 동일계열학과를 2지망으로 할 수 있으나, 비사범대학 각

학과를 제1지망으로 하는 자는 사범대학 각 학과를 제2지망할 수 없다.

전형방법에 있어 성적반영 비율 및 배점은 일반학과와 경우 학력고사 성적 70%(3백40점), 고교 내신성적 30%(1백45.7점)로 작년과 같고, 예체능계열학과(음악, 미술, 산업디자인)는 작년과 달리 실기고사성적을 5% 줄인 35%(1백70점), 학력고사 성적이 5%늘어난 35%(1백70점), 고교내신성적 30%(1백45.7)로 조정됐다.

성적반영비율 및 배점 이외에도 예체능 계열 학과의 입학전형은 타대학의 입시 부정 사건등의 영향으로 그 지침이 강화, 변동사항이 많았다.

실기고사시의 변동사항을 알아보면 △평가위원:5인 이

상의 전임강사이상의 교수로 하되, 타대학 교수가 1/2이상 참여토록 했으며 △평가방법 및 관리:충분한 실기평가 시간을 부여하고 평가자료를 녹음, 녹화등을 통해 졸업시까지 보존 △평가시기:학력고사전(91년 12월10일~13일)등이 있다.

또한 음악학과와 경우 현 약전공은 예년과 달리 악기별로 세분화 되어 5명, 비올라 2명, 첼로 2명, 콘트라베이스 1명씩을 모집하고, 산업디자인학과도 시각디자인, 공업디자인, 산업공예로 나눠 전공별로 모집키로 했다.

특별전형에 있어서 야간간좌부 산업체근무자 특별전형이 입학정원 20%에서 30%로 확대됐고, 체육특기자는 체육학과 정원이 10명 증원된 관계로 1명이 늘어난 16명, 일반학과 체육특기자로

는 야간간좌부 법학과 1명, 회계학과 1명 총 18명의 체육특기자가 특별전형을 받게 됐다.

그외에 변동된 사항으로는 신제검사시 색맹검사 대상학과가 미술학과, 과학교육과(생물교육 전공), 농학과, 원예학과, 농화학과, 수의학과, 식품영양학과, 해양학과와 공과대의 전학과로 축소됐다.

신입생 모집에 관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원서교부:11월19일~25일(정문 수위실)

▲원서접수:11월21일~25일(제1지망학과 소속대학)

▲예비소집:12월16일 오후 1시(제1지망학과 소속대학)

▲실기고사-체능계:12월 19일~20일(운동장 및 체육관) 예능계:12월 10일~13일(관련 강의실)

▲합격자 발표:12월 30일

이전

한편, 92학년도 99개 전기대학(21개 전기분할 모집 후기대 및 11개 교육대 포함)의 모집정원은 모두 15만6천1백11명으로 '91학년도 14만6천3백46명보다 9천7백65명이 늘어났다.

이에따라 오는 12월 17일 실시되는 전기대 입시에는 65만명 안팎의 수험생들이 지원해 전국 평균 경쟁률이 '91학년도 평균 경쟁률 4.53대1보다 약간 낮은 4.2대1 가량 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치열한 입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도 '90학년도 3.46대1, '91학년도 3.33대1의 경쟁률을 웃도는 치열한 입시경쟁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학교 '89, '90, '91학년도 입시 경쟁률 도표 참조>

외국어교육관 93년 완공

외국어교육위한 최첨단시설 갖춰

93년 3월 완공예정인 외국어교육관 신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척될 경우 본교생들은 늦어도 93학년도 신학기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좋은 시설 밑에서 외국어 교육을 받게 된다.

외국어 교육관은 첫째, 국내 타대학에 비해 10여년 앞선 최신, 최고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시설과 프로그래밍을 갖춰 외국 유명대학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시설과 기능을 갖춘 한국 외국어 교육, 연구의 중심부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둘째, 영어, 일어, 독어, 중국어, 불어 등 현직 유능한 교수와 외국인 교수들 손색없는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어, 스페인어 까지 확대하여 유능한 전문 외국어 담당 교수진에 의하여 효율적인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세계적인 외국어 프로그래밍 연구기관과 연구, 교육에 관한 협정체결을 하여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 교육 연구함으로써 국내 최고 연구, 교육 기능을 다하게 된다.

1. 연혁
 - ①1987년 12월 8일 인문대학 학과장회의에서 외국어교육관 설립 결의
 - ①1988년 1월 외국어교육관 설립계획 작성
 - ①1988년 1월 인문대학 학과장회의에서 외국어교육관 설립계획 확정
 - ①1988년 1월8일 인문대학 전체 교수회의에서 외국어교육관 설립, 추진
 - ①1988년 4월 제주대학교 학·처장회의에서 외국어교육관 설립 결의
 - ①1989년 11월 외국어교육관 설립 정부예산안 확정
 - ①1990년 4월 19일 제주대학교 규칙 제171호에 의하여 외국어교육관 설립
 - ①1991년 3월 국립학교 설치령 제1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외국어교육관 법정기구로 됨
2. 교육내용
 - 외국어 교육관에서 담당



◇오는 93년 개관되는 외국어 교육관 조감도

하게 될 교육내용은 학생들이 생활외국어 능력의 함양으로 △1학년 전교생에 대한 외국어교육 △영 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일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외국어 전공학생들에 대한 외국어교육 △일반 학생들에 대한 취업, 진학 및 일반 외국어 교육 △제주대학교 졸업생에 대한 특별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둘째, 제주도에 각 기관, 관공서, 초·중·고등학교 외국어 담당교사 및 일반시민의 외국어 위약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셋째, 국제 회의를 위한 시설을 제공한다.

3. 교육시설
- 최신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외국어교육실, 사운드라이브러리 한국 최고의 시설과 기능을 갖춘 외국어교육관은 1차공사로 지하 1층, 지상 3층 총건평 2,500㎡ 건물이 1992년 완공되며 2차공사로 총건평 2,200㎡ 건물에 국제회의장 영사실등을 갖추게 된다.
- △외국어교육실 60명 단위 수업을 위한 강의실 12개로 비디오와 오디오시설을 갖춘 어학실 습실로 강의 수업을 위해 사용되며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된다.
- △자료보관 및 교육계획실 각종교육자료를 보관하

고 관리하며 교육계획및 강의시간 조절등 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실로 활용된다.

△사운드라이브러리 1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단위 집단을 위한 강의실과 동시어화상실로 활용한다.

△인원형 전용외국어교육실

대형 TV 스크린과 overhead project를 갖추고 소단위 그룹별 외국어 수업을 실시한다.

△분임세미나실 각종회의및 세미나 개최 시 분야별 세미나실로 이용되며 외국어전공 대학원 강의실로 이용한다.

△행정실 직원사무실로 각종 자료를 비치한다.

△국제회의장 300석 규모의 7개국어(영어, 일어, 독어, 중국어, 불어, 노어, 스페인어)동시통역 시설을 갖춘 대규모 회의 및 학술세미나장을 이용한다.

△전임연구원실 외국인 교수연구실과 외국어 각분야의 연구원 연구실로 사용된다.

△컴퓨터실 컴퓨터교육및 실습실로 사용된다.

◆학생기숙사

학기초에 사생210명 선발 원하면 3년동안 입주가능 2인1실 사용

제주대학교 학생기숙사사 자건영관인 수려하고 각 대학의 강의동과 인접하는 곳에 21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동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동, 기타 편의 시설들을 현대식으로 갖추어 놓았다.

매년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본대학 학생으로서 타 시도 및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신체적 조건 등으로 통학이 극히 불편한 자들을 선발하여 숙식 생활에 제반 편의를 제공하

고 있으며,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주 시민의식의 고취, 기타 대학생활에 도움을 주며 교내 교수와 교외 기타 행정요원들을 배치하여 24시간 생활지도 및 상담활동에 임하고 있음은 물론,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경비근무자를 주야로 배치하여 각종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이 기숙사의 입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최고 3년까지 기숙이 가능하다. 기숙사비는 학교당국에서 기본경비를 보조하여 줌

으로써 사생들은 최소한도의 수속성경비만을 부담하게 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사생선발 시기는 재학생은 매학년도 말에, 신입생은 30%범위 내에서 합격자 발표시기에 선발하고 있다. 선발기준은 재학년에 많은 수를 배정하여 학업성적, 품행, 통학거리, 신체적 조건, 건강상태 등을 심사하고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을 하고 있다.

현재 이 기숙사는 매식제로 식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1992학년도부터는 사생자지급식제로 전환코자 하고 있으며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확충할 계획에 있다.

사생선발 및 입사에 관한 내용은 표와 같다.

(표1) 입사정원 및 시설규모

종	방 수	사 생 정 원	비 고
A동	57실	114명	1실2인
B동	50실	100명	"
계	107실	214명	

(표2) 부대시설

개별별	책상, 의자, 책꽂이, 옷장, 침대(각1개씩)
기숙사	식당동 2층 1개조(중간고사, 기말고사시 개방)
체육실	A동 2층 및 식당동(각 1개조), 매점운영(오전 9시~오후 10시30분)
헬스장	식당동 2층 2개, 당구대 2대설치(오전 9시~오후 10시)
난방시설	식당동 뒤에 설치(오전 4시~9시, 오후 6시~10시)
기타	3월1일부터 4월15일, 10월25일부터 12월7일(1일 6시간 가동)은수 및 스팀공급

차기 총학생회장엔 윤철수 학우 당선 여학생회장엔 이영심 학우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자치기구 정·부회장선거가 지난 11월 8일 모두 끝났다. 차기 정부회장 당선자가 확정 공고됐다.

총학생회장 선거는 당초 11월 14일 있을 예정이었으나 윤철수(무예3)·홍상범(화학3)조만이 단독 입후보함으로써

윤영의 내실화, △제주지역 민주연합 건설의 선봉적 역할 수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정·부학생회장에는 이영심(국문3, 정)·임희정(수교2, 부)조, 총대의원회 정·부의장에는 김재성(법학3, 정)·오성택(과교3, 부)조가 당선됐다.

각 단과대학 정·부 학생회장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인문대 = 김유경(국문3, 정), 김영두(미술3, 부)

법정대 = 강기석(행정3, 정), 김수경(법3, 부)

경상대 = 좌용철(회계2, 정), 김현진(경제2, 부)

사범대 = 김원갑(국교3, 정), 김은정(영교2, 부)

농과대 = 고동환(농학3, 정), 김원석(축산2, 부)

자연대 = 김민보(물리3, 정), 백수진(생물2, 부)

공과대 = 김동원(정보공 3, 정), 양방준(기관공 2, 부)

야간간좌부 = 김광진(야간법2, 정), 이창용(야간경영3, 부)

濟州大學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會長 梁 性 厚

常任副會長 高 永 璡
副 會 長 梁 奉 圭

副 會 長 邊 聖 根
" 金 泰 煥

事務局長	金武昌	理 事	申弘湜	理 事	高翊朝	理 事	吳現道	理 事	梁哲豪	理 事	金良順	理 事	姜榮峯	理 事	金勇作
企劃理事	文鍾彩	"	吳海鍾	"	金文瑄	"	趙南棋	"	宋升弼	"	李文哲	"	金德男	"	金仁培
總務理事	高庸文	"	金映殷	"	金文玉	"	鄭順澤	"	文斗吉	"	金榮俊	"	玄進五	"	李志衍
財政理事	梁奉鎰	"	梁時旭	"	金相秀	"	車柱弘	"	徐庚林	"	鄭秉植	"	孫裕遠	"	高性範
組織理事	梁敏弘	"	許順七	"	金仁圭	"	金斗萬	"	姜登好	"	姜永周	"	朴成七	"	朴喜秀
文化理事	金炳澤	"	吳勝治	"	白元弘	"	朴問基	"	姜東植	"	高昊杓	"	姜志勇	"	金斗元
涉外理事	韓康洙	"	梁澤瑛	"	梁元赫	"	金泰興	"	姜昌植	"	金永昌	"	金昌禧	"	高榮哲
事業理事	康共弼	"	姜喆周	"	李君先	"	宋哲駿	"	金勝正	"	金榮洪	"	金富一	"	康聖賢
獎學理事	夫萬根	"	梁眞濤	"	許大振	"	金南植	"	金永澤	"	金榮訓	"	張德文	"	姜尙憲
女性理事	夫晴子	"	吳光協	"	金益洙	"	高景澤	"	朴卿久	"	夫彰敏	"	康東彥	"	姜榮峯
體育理事	張大建	"	許仁玉	"	高京旭	"	慎浩根	"	姜宗豪	"	高錫根	"	許香珍	"	金勝立
弘報理事	李文教	"	玄商鍾	"	白興官	"	李時榮	"	高宗彥	"	金守眞	"	宋在倫	"	金桂春
監 事	金性杓	"	咸元宗	"	姜東三	"	吳文儒	"	尹良洙	"	許益善	"	高彰根	"	許虎珍
"	李旭珩	"	高鍾健	"	高南旭	"	許京孝	"	姜昌洙	"	趙城完	"	金勝立	"	獎學幹事
"	高昌實	"	姜詩炫	"	金昌顯	"	康友清	"	姜成昊	"	金映大	"	金斗和	"	洪蓮淑
理 事	高應三	"	高光秀	"	文斗玟	"	金相哲	"	徐斗玉	"	梁祚勳	"	玄英男	"	梁碩厚
"	姜柄燦	"	金景錫	"	李明豪	"	金河宗	"	高奉玉	"	金洙賢	"	梁永哲	"	弘報幹事
"	金志勳	"	韓允三	"	金明必	"	金翰琳	"	高有峰	"	玄光洙	"	白文璠	"	尹正雄
"	申守容	"	康相鏞	"	文泰鶴	"	梁宇鎮	"	夫禮植	"	文榮燦	"	金斗元	"	